
2025 추계 인문콘텐츠학회 · (재)문화영토연구원 공동학술대회

‘Next K’ 시대와 문화지형의 전환

– <문화영토 세션> 진행 순서 –

- 장소 : 한성대학교 탐구관 지하 강당2
- 발표 15 분, 지정토론 5분, 질의 5분
- 좌장 : 김정우 (고려대학교)

시간	내용	발표자	토론자
14:00~14:25	다가오는 넥스트 K, 새롭게 창조하는 ‘로컬리티’ : 다양한 지역의 사례와 함께	이재민 (세종연구원/한국 전통문화대학교)	이희성 (단국대학교)
14:25~14:50	한국어교육의 변천과 과제 -한국어 평가를 중심으로-	이인혜 (전남대학교)	정원기 (한국교원대학교)
14:50~15:00	휴식		
15:00~15:25	K문화 시대 웰리사의 재해석과 시민적 공유	한남수 (선문대학교)	이유정 (고려대학교)
15:25~15:50	K의 해체와 재구성 - 뉴진스 현상과 케이팝 정체성의 전환	서영호 (경상국립대학교)	이상유 (고려대학교)

다가오는 넥스트 K, 새롭게 창조하는 ‘로컬리티’ : 다양한 지역의 사례와 함께

이재민(세종연구원)¹⁾

국문초록

이 연구는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이 전통·역사·유산에 근거해 형성된다는 기준 관점에서 벗어나, 오늘날 지역이 스스로 의미를 생산하며 정체성을 창조해 가는 흐름에 주목한다. 김천·칠곡·세종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로운 로컬리티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탐색하였다. 김천에서는 일상적 소재인 ‘김밥’이 지역의 기호로 전환되었고, 칠곡에서는 할머니들의 연극 활동이 공동체의 서사가 되어 생활문화 중심의 정체성이 형성되었다. 세종은 전통적 유산이 부족함에도, 한글을 활용하여 ‘한글문화도시’라는 미래 지향적 비전을 통해 정체성을 설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체성이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재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창조적으로 형성되는 로컬리티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함의하고 있음을 밝혔다. 먼저, 정체성의 구성 원리를 ‘갖고 있는 것’에서 ‘만들어 가는 것’으로 확장하고, 주민을 정체성 생산의 주체로 등장시키며, 지역 내부 경험에 기반한 브랜드를 형성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전통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지역이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며, 지역의 미래 전략을 정체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의미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전통 중심 모델의 한계를 넘어, 현재의 실천을 토대로 지역이 독자적 정체성을 창조하는 ‘창조형 로컬리티’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를 살필 수 있겠다.

주제어: 넥스트K, 로컬리티, 정체성, 지역콘텐츠, 문화민주주의

1)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장)/한국전통문화대학교 겸임교수, culture@sri.re.kr

I. 과거 우리의 로컬리티는 무엇이었나?

‘김천’ 하면 무엇이 떠오를까. 오랫동안 내게 김천은 천년고찰 직지사, 포도와 자두 같은 농산물, 그리고 내가 석사학위 논문을 썼던 부항면 해인리의 풍경이 먼저 스쳤다. 전통과 자연, 그리고 마을의 기억이 김천을 규정하는 특징들이었다. 그런데 최근 김천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지역 고유의 유산과 직접적 연관이 크지 않은 김밥이 오히려 도시를 대표하는 콘텐츠가 되었고, ‘김천=김밥축제’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자원이 아닌 새로운 창작과 기획이 한 지역의 정체성을 바꾸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김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칠곡에서는 할머니들이 스스로 무대에 올라 연극을 만드는 과정이 “연극하는 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고,¹⁾ 세종에서는 역사적 기반이 거의 없는데도 ‘한글수도 세종’이라는 비전 아래 도시가 자발적인 실천으로 정체성을 재구성하고 있다.²⁾ 세 지역 모두 전통적 의미의 유산보다는 지금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실천과 창작이 지역의 얼굴을 다시 그려내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고유한 역사, 전통, 자연환경 등의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 왔다. 많은 지역정책과 문화사업 또한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전통문화의 발굴·보존·재현을 통해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은 이러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기존의 유산이나 역사적 기원과 크게 관련이 없지만, 여러 가지 양상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이는 지역의 정체성이 전통의 재현을 넘어 로컬의 맥락과 관계 속에서 생성되며³⁾, 생활문화와 공동체 기반의 실천, 그리고 주민참여를 통해 재구성된다는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⁴⁾ 이는 지역의 정체성이 전통의 재현을 넘어 주민 참여, 생활문화 활동, 공동체 기반의 창작 실천을 통해 재구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지역주민은 다양한 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구현되는 이미지, 문화적 경험, 브랜딩 등이 더해져 새로운 정체성이 구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경북 김천시의 사례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2012년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는 최근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문화도시 공모에 선정되어 2025년부터

1) 이재민, 「우리 ‘삶터’, 콘텐츠의 매체가 될 수 있을까?」, 『인문콘텐츠』 제75호, 2024, 376~377쪽.

2) 이재민, 위의 논문, 377쪽.

3) 강수현·김동언, 강수현·김동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용인시 보정역 생활문화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4권 1호, 105쪽.

4) 이효연·최익서, 지역 정체성 기반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국내 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례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7호, 2020, 315쪽., 임재현·한상현, 지역 생활문화활동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과문화』 제6권 3호, 2019, 61쪽.

2027년까지 약 200억 원의 예산 지원을 받는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세종시 정체성 구현을 위한 문화적 소재로서 한글에 관한 인정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사실 한글도시라고 하면 세종대왕릉이 있는 여주, 세종이 태어난 서울 종로, 최현배 선생의 서사가 있는 울산광역시 정도 언급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세종특별자치시 한글도시로 선언을 했던 순간이다. 그래서 현재 한글로 미래를 그리기 위한 세종시의 노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전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지역이 스스로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다시 말해, 오늘날 지역은 과거의 유산을 ‘기억하는 공간’에서 미래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국내·외 지역성 연구의 흐름을 바탕으로, 첫째 기존 전통 중심 지역정체성 이해의 한계를 검토하고, 둘째 지역이 스스로 의미와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창조형 로컬리티(Creative Locality)’ 개념을 정리하며, 셋째 김천·칠곡·세종 사례를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이 과거의 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공간을 넘어, 현재와 미래의 실천을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 같은 시도는 다가오는 ‘넥스트 K’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로컬리티의 지향점을 고찰했다는 학문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I. 로컬리티의 변화와 흐름

과거 지금까지 우리지역의 정체성은 오랫동안 지역이 지닌 전통, 역사, 자연환경 등 이미 존재하는 자원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는 지역을 규정하는 핵심 요소가 지역 고유의 유산을 얼마나 잘 보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를 의미하였고, 지역정책 또한 이 같은 전제를 토대로 문화유산 복원, 향토사 발굴과 기록, 전통문화 또는 특산물 축제와 같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지역의 정체성을 고정된 속성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분명하다. 지역은 시간이 흐르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과거의 유산에서만 찾으려는 관점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동성과 미래가치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이에 관한 비판적 의식이 있었다. Massey(1994)는 지역을 단일한 역사나 정체성을 가진 폐쇄된 공간으로 보는 관점을 비판하며, 지역은 다양한 관계의 흐름과 상호작용 속에서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열린 장소’”라고 주장했다. Appadurai(1996) 또한 지역성(locality)을 어떤 고유한 본질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을 통해 생산되는 결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지역정체성을 과거의 유산에만 기댄 채 해석하거나 재현하는 방식으로는 현대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전통 중심의 지역정체성 모델이 지닌 한계와 함께, 주민의 생활문화 활동과 참여를 통해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된다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다. 이효연·최익서(2020)는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가 도시재생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며, 주민이 문화 생산의 주체로 등장할 때 지역의 의미가 재구성된다고 강조한다. 임재현·한상현(2019)은 생활문화활동이 자아존중감, 사회참여, 교류 확대 등 사회적 효과를 놓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인식과 애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또한 강수현·김동언(2021)은 생활문화센터가 자발적 참여와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와 정체성 형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흐름을 감안할 때, 전통 중심 지역정체성 이해는 몇 가지 구체적 문제를 드러낸다. 첫째, 전통 자원의 유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전통 유산이 풍부한 지역은 비교적 쉽게 정체성을 구성할 수 있지만, 신도시나 산업도시처럼 역사적 기반이 약한 지역은 동일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정체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세종과 같은 도시가 대표적 사례로, 누구나 알만한 전통적인 유산은 다소 부족함에도 한글을 문화적 소재로 활용하는 정책적 전략으로 통해 한글문화수도라는 창의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전통 중심 관점은 지역을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으로만 이해하게 되어, 현재 지역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창작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예컨대 경북 칠곡군에서 할머니들이 스스로 무대에 올라 연극을 만드는 과정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전통 중심 접근으로는 이를 해석하기 어렵다. 지역정체성은 이미 존재하는 유산의 재현이 아니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들의 문화적 실천과 관계망에 의해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통 중심 정체성은 지역문화정책의 획일화를 초래할 수 있다. 많은 지역이 전통을 발견하거나 스토리텔링화하여 축제를 기획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지역 간 차별성이 약화되는 역설이 발생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지역의 경쟁력은 전통 유산 자체보다는 새로운 경험과 가치 생산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이다.⁵⁾ 넷째, 현대 지역의 변화 속도는 과거 중심의 방식과 접근으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인구 이동, 산업구조 변화, 디지털 문화의 확산 등은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방식을 빠르게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새로운 주민의 유입, 젊은 세대의 문화적 취향, 온라인·오프라인이 결합된 지역 경험, 다변화하고 유동적인 콘텐츠의 흐름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체성을 단일한 전통으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통 중심 접근은 새로운 정체성이 등장하는 동력을 과소평가한다. 김천의 김밥축제, 칠곡의 할머니연극과 힙합, 세종의 한글문화수도, 옥천·진안·완주·홍성 등에서 새롭게 구현되는 공동체 문화도시 등은 모두 전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현재의 관점에서 주민 중심으로 구현

5) Kavaratzis, Mihalis & Ashworth, G. J. "City branding: An effective assertion of identity or a transitory marketing trick?"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 96, No. 5, 2005.

되는 문화적 실천, 창의적 기획, 의미있는 경험이 더해져 지역을 콘텐츠로 생산하고 있고, 이 콘텐츠의 지속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구현 양상은 전통이 정체성 형성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더 이상 유일한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한다.

결국 전통 중심 지역정체성 이해는 과거의 흔적을 해석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오늘날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정체성의 흐름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은 과거의 유산을 ‘기억하는 장소’에 머물지 않고, 현재의 실천을 통해 미래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창조의 장소’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지역정체성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로컬리티를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을 가리킨다. 더 이상의 과거가 아니라 글로벌 사회에서 K-문화를 견인하고, 다가올 ‘넥스트 K’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로컬리티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제안하는 ‘창조형 로컬리티’는 이러한 전환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분석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II. 연구 사례를 통한 새로운 로컬리티의 흐름과 의미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은 더 이상 ‘과거’에 얹매이지 않는다. 오늘날 지역의 정체성은 주민들의 실천, 공동체의 창작 활동, 도시가 스스로 선택한 가치와 비전 등 현재의 행위와 경험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2년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조성된 ‘세종특별자치시’, 김밥의 성지가 된 ‘김천시’, 할머니 브랜드를 만든 ‘칠곡군’은 이같은 흐름을 합의하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 세 지역은 전통 기반의 정체성보다는, 전통과 무관해 보이는 대상이나 주민의 창작 활동, 도시의 미래 전략적 선택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다.

1. 김천: MZ세대가 부르는 ‘김천’을 활용

김천의 변화는 매우 흥미롭다. 오랫동안 직지사와 포도·자두 같은 농산물이 김천을 상징했지만, 최근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적 기호는 전통과 무관한 ‘김밥’으로 바뀌고 있다. 김밥이라는 소재는 역사적 유산도 아니고 특정한 전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지역사회가 이를 중심으로 축제를 기획하고,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경험을 만들어내면서 ‘김천=김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김천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김밥천국’이라는 답변이 1등으로 조사되었고, 이에 의해 김밥을 활용한 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이다.⁶⁾ 줄임말에 익숙했던 MZ세대들은 김밥천국을 ‘김천’이라는

6) 세계일보 뉴스기사 10월 26일자. “김천, 아 ‘김밥천국’이요?”…그래서 열린 축제였다고? [수민이가 궁금해요]

줄임말로 소통을 했고, 이것이 김천의 김밥축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특정 사물이나 행위가 지역의 문화적 경험과 결합할 때, 전통적 자원이 아니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정체성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다.⁷⁾ 김천의 사례는 주민의 생활세계에서 비롯된 창의적 시도가 지역정체성까지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2. 칠곡: 할머니들의 예술활동

칠곡의 사례는 공동체 기반의 창작 활동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을 잘 보여준다. 칠곡에서 할머니들이 스스로 무대에 서고, 자신의 삶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과정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지역을 바라보는 인식을 변화시켰다. 할머니연극단의 활동이 지속되면서 칠곡은 ‘연극하는 도시’라는 새로운 이미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는 외부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인식마저 바꾸어놓았다. 이 서사는 단순히 연극단의 활동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으로 확장되었다.⁸⁾ 이를 통해 칠곡군은 경북에서 가장 젊은 도시와 이미지와 함께 ‘생활문화가 살아 있는 곳’,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3. 세종: 미래의 비전을 전통에서 찾은 전략적 선택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구성은 행정복합도시를 뜻하는 신도시권역과 과거 연기군 조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읍면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도시 권역은 행정복합도시로 과거의 문화를 단절하고 새롭게 신도시로서 개발하고 있어 전통자원은 다소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세종이라는 이름, 세종대왕과 과거 지역과의 인연, 도시 출범 후 진행된 문화 정책 등을 통해 도시 정체성 소재로서 한글을 활용하고자 했고, 이를 중심으로 재편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는 한글을 활용하고 문화적 정체성 구현을 위한 핵심 소재로서 설정함으로써 오히려 새로운 문화적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세종의 한글도시 전략은 도시의 기획적 선택이 정체성 형성의 핵심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의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세종은 문화도시 사업과 다양한 한글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의 미래상을 한글과 연결했고, 이는 정체성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도시의 지향성과 실천을 기반으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77754?sid=102> (2025년 11월 15일 검색)

7) 이재민, 위의 논문,

8) 이재민, 「할머니 연극단의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콘텐츠 구현전략」, 『글로벌문화콘텐츠』

IV. ‘창조형 로컬리티’가 함의하는 가치와 의미

김천, 칠곡, 세종의 사례는 각기 다른 배경과 조건 속에서 형성된 것이지만, 공통적으로 전통 중심 정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로컬리티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지역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지역이 스스로의 의미를 구성하고 사회적 역동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창조형 로컬리티가 지역사회에 가져다주는 가치와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지역정체성의 확장: ‘있어야만 한다’에서 ‘만들어 갈 수 있다’로

새롭게 형성되는 로컬리티의 가장 큰 의미는 정체성의 구성 원리를 확장했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지역이 가진 전통·역사·문화유산의 유무가 정체성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김천의 김밥처럼 전통과 무관한 일상적 요소, 칠곡의 할머니연극처럼 주민의 창작 활동, 세종의 한글문화도시처럼 도시의 미래 전략이 정체성의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정체성은 ‘무엇을 갖고 있는가’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는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며, 스스로 정체성을 능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문화적 자율성의 확대를 꾀할 수 있다. 이는 더 이상 전통의 양과 질에 의해 지역의 가능성에 제한되지 않고, 현재의 실천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시하고 있다.

2. 주민이 정체성 생성의 주체가 되는 경험

세 지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중요한 의미는 주민이 정체성 생성 과정의 중심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김천의 축제에서 김밥을 만들고 소비하는 행위, 칠곡에서 할머니들이 연극과 힙합을 통해 자신의 삶을 드러내는 활동, 세종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한글문화 프로젝트 등은 모두 정체성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세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주민에게 정체성에 관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경험을 제공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 제고와 공동체 의식의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일상문화 기반의 창작 활동은 주민 개인에게는 자기표현의 기회가 되고, 지역에는 공동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문화적 에너지로 작용하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3. 지역 브랜드의 다중화: 외부 이미지에서 내적 경험으로

과거 지역 브랜딩이 외부 홍보 중심이었다면, 창조형 로컬리티는 지역 내부의 실제 경험과 감정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김천의 경우 김밥은 단순한 축제 아

이템이 아니라 지역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함께 만들고 나누는 경험이 되었다. 칠곡의 연극은 주민의 삶을 기반으로 한 서사이기 때문에 외부 방문자뿐 아니라 지역 내부 구성원에게도 강한 의미를 남기고 있다. 세종의 한글도시 이미지 또한 정책의 구호를 넘어 주민의 실천과 생활 속 콘텐츠로 확장될 때 비로소 도시의 브랜드로서 힘을 가질 수 있다. 즉, 새로운 로컬리티는 지역의 이미지를 외부로 보여주기 위한 표식이 아니라, 지역 내부의 문화적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기존 지역브랜딩과 다른 충위를 형성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

4. 다양한 지역이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 형성

전통 중심 접근은 유산이 풍부한 지역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했다. 그러나 창조형 로컬리티는 전통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지역이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구조를 제시한다. 김천처럼 일상적 요소를 전환하거나, 칠곡처럼 주민의 창작이 중심이 되거나, 세종처럼 도시가 스스로 비전을 설정하는 방식 모두 문화적 자원이 빈약한 지역에게도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중앙 중심의 문화정책 흐름에서 벗어나 분권적·다양성 기반의 문화생태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5. 지역의 미래 전략을 ‘정체성 중심’으로 재구성

기존 지역정책이 산업·관광·경제 중심적이었다면, 새로운 로컬리티는 지역의 미래를 정체성 중심 전략으로 바라보게 만든다. 세종의 한글도시, 김천의 김밥축제의 지속적 확장, 칠곡의 생활문화 기반 창작 생태계는 모두 정체성이 곧 지역의 미래 전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정체성이 명확해질수록 관광·콘텐츠·산업·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가 발생하며, 이는 지역의 장기적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V. 넥스트 K, 우리의 로컬리티는 앞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오늘날 지역정체성은 고정된 ‘유산의 총합’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발생하는 실천과 경험의 축적, 그리고 도시가 선택하는 미래적 방향성에 의해 구성되는 ‘창조형 로컬리티’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전통 중심 접근은 지역의 역사적 자산을 해석하는 데에는 유효하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문화적 환경과 새로운 지역성 형성 흐름을 이해하기에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반면 창조형 로컬리티는 일상적 소재, 생활문화 기반의 창작, 주민의 참여와 실천, 도시의 전략적 선택을 중심에 두고 지역을 미래 지향적 정체성 생산의 장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문화

정책은 더 이상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출발해서는 안 된다. 과거의 유산 유무가 지역의 가능성을 결정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지역이 무엇을 만들어가고자 하는가, 어떤 문화적 기호와 실천을 축적해가는가, 어떠한 역량의 사람이 살고 있는가 등이 정체성 형성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은 고정된 유산을 발굴·보존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상문화 기반에서 발생하는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주민은 정체성 생산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creator)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김천의 축제 참여, 칠곡의 할머니연극과 생활문화 활동, 세종의 한글문화 프로젝트에서 보듯이, 정체성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실천을 통해 만들어진다. 이는 더 이상 문화의 민주화가 아니라, 문화민주주의가 곳곳에 스며들고 있음을 함의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과 지역문화 기획은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생활문화를 지역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역 브랜드는 외부 홍보 중심의 일방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내부의 감정·경험·생활세계에 기반한 다층적 정체성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김천·칠곡·세종 사례는 지역 내부에서 먼저 의미가 형성되고, 그것이 외부 이미지로 확장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지역 브랜딩 전략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문화적·사회적 경험의 축적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전통 중심 접근을 넘어, 다양한 지역이 문화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분권형·다중 중심적 문화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통 자원이 부족한 지역도 창의적 실천과 전략적 기획을 통해 충분히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음을 사례는 보여주었다. 이는 지역 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이 스스로 미래 전략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로컬리티는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 전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문화, 관광, 교육, 산업, 도시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체성 중심의 전략을 통합적으로 구성할 때, 지역은 ‘정체성-정책-산업-경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K-컬처 이후의 흐름 속에서, 지역의 고유한 로컬리티는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화 자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이 논의를 통해 오늘날 지역은 더 이상 과거를 단순히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기호를 끊임없이 창조해가는 문화적 주체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천·칠곡·세종의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가장 생동감 있게 보여줌으로써, 향후 한국 지역문화정책과 지역정체성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이 자신들의 일상적 실천과 창작을 통해 새로운 로컬리티를 구성해 나감으로써, 더 풍부하고 다층적인 지역문화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단행본

Doreen Massey.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4.

Arjun Appadurai. Modernity at Large: Cultural Dimensions of Globalizatio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96.

• 참고논문

Kavaratzis, Mihalis & Ashworth, G. J. "City branding: An effective assertion of identity or a transitory marketing trick?" *Tijdschrift voor Economische en Sociale Geografie*, Vol. 96, No. 5, 2005.

강수현·김동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생활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 : 용인시 보정역생활문화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14권 1호, 101–127쪽.

이재민, 「할머니 연극단'의 활동을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구현전략」, 『인문사회 21』, 제11권 2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0, 1679–1690쪽.

이재민,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본 지역문화콘텐츠의 창출 과정과 의미 : 칠곡군 영오리 사례」, 『지역과문화』 제7권 제1호, 2020, 01–26쪽.

이재민, 「인물 이야기를 활용한 공간형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뉴트로적 특성과 의미: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의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8호, 2021, 27–45쪽.

이재민, 「마을만들기'를 통해 나타나는 마을문화콘텐츠의 구현 양상 : 칠곡인문학마을 사례」, 『글로벌문화콘텐츠』 제40호, 2021, 47–65쪽.

이재민, 「우리 '삶터', 콘텐츠의 매체가 될 수 있을까?」, 『인문콘텐츠』 제75호, 2024, 369–388쪽.

이효연·최익서, 지역 정체성 기반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아트 활성화에 관한 연구 – 국내 지역 연계 프로젝트 사례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제15권 7호, 2020, 311–318쪽.

임재현·한상현, 지역 생활문화활동의 사회적 효과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과문화』 제6권 3호, 2019, 55–77쪽.

• 기타자료

세계일보 뉴스기사 10월 26일자. “김천, 아 ‘김밥천국’이요?”…그래서 열린 축제였다고?
[수민이가 궁금해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77754?sid=102> (2025년 11월 15일 검색)

토론문

이희성(단국대학교)

1. 논문의 핵심 기여에 대한 평가

이재민 박사의 이번 발표는 로컬리티(locality)에 대한 기존의 전통 중심적 시각을 탈피하여, ‘창조형 로컬리티(Creative Locality)’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세 지역(김천, 칠곡, 세종)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탐색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창의적인 성과라고 평가된다.

특히, 넥스트 K 시대라는 전환기에 맞춰 지역문화의 생산자 중심성, 실천 기반의 정체성 형성, 브랜드의 내면화라는 담론을 전면에 내세운 점은 향후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 설정에 있어 실질적인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2. 주요 논점에 대한 논의

1) ‘창조형 로컬리티’의 개념적 확장

기존의 지역정체성 논의가 전통, 역사, 자연이라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 의존했다면, 본 연구는 지금 이곳에서의 실천과 경험을 통해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김천의 ‘김밥’, 칠곡의 ‘할머니 연극’, 세종의 ‘한글문화도시’ 전략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통을 대체하거나 변용한 창조적 기획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접근은 문화민주주의의 이념과도 맞닿아 있으며, ‘참여’와 ‘주체성’의 중요성을 환기시킨다.

2) 전통 중심 담론의 비판과 대안

전통 중심주의의 한계로 정체성 형성의 불균형, 현재적 실천의 배제, 지역 간 유사성 증폭 등이 지적되었으며, 이는 지역문화정책이 특정 유산 보존 중심의 ‘박제형 접근’에 머물렀음을 반성하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나, 주민의 일상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자율적인 기획이 곧 정체성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3) 넥스트 K 시대, 문화전략의 새로운 지향

'Next K'는 단지 K-컬처의 확장판이 아닌, 로컬의 재구성 가능성과 주체화를 통해 문화경쟁력을 새롭게 설계하는 시대이다. 이 연구는 이를 위해 지역정체성-정책-산업-경험 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제안하며, 지역이 문화전략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창의적 기획의 장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3. 비판적 검토 및 제언

1) 개념의 이론적 정교화 필요성

'창조형 로컬리티'는 개념적으로 매력적이나, 그 개념을 이론적으로 보다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존의 로컬리티 개념(예: Massey, Appadurai)과의 차별성과 계보적 위치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정체성 구성 요인(예: 실천, 상징, 기억, 서사 등)에 대한 개념적 프레임워크가 보완된다면 이론의 확장성이 더욱 확보될 수 있다.

2) 사례 간 비교분석의 균형 문제

김천·칠곡·세종이라는 사례가 제시되었으나, 각 사례의 분석 밀도와 논거의 일관성에서 약간의 편차가 감지된다. 예컨대, 김천의 경우 MZ세대의 온라인 담론이 출발점이었다면, 세종의 사례는 행정계획과 정책기획의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주민 주도형', '정부 주도형', '혼합형' 창조형 로컬리티의 유형화를 시도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속 가능성 및 제도화 방안

정체성 형성이 '창조'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일회성 이벤트나 일시적 유행의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창조형 로컬리티가 지역 내 제도적 구조 속에 어떻게 내재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 도시계획, 청년문화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4. 결론: 이 논문이 주는 학문적·정책적 함의

이재민 박사의 논문은 단지 사례 기술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지역문화담론의 전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체성의 주체를 바꾸고, 정체성 형성의 방식을 전환하며, 지역을 창의적 실천의 무대로 재배치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이 논의가 지역문화재단, 도시브랜딩 정책, 생활문화센터, 공동체 예술사업 등과 연계되어 실천적 방향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하며, ‘Next K 시대’에 걸맞은 로컬리티 전환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하겠다.

☞ 창조형 로컬리티의 제도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문

“창조형 로컬리티는 일상적 실천과 참여에 기반한 동적인 정체성 모델로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정체성이 일회성 콘텐츠로 소비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로 내재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 ‘창조형 로컬리티’의 일반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질문

“김천, 칠곡, 세종 사례는 매우 인상적이지만, 문화적 역량이나 기획력을 갖춘 주체가 부재한 소규모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창조형 로컬리티’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이 개념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요?”

한국어 교육의 변천과 과제

： 한국어 평가를 중심으로

이인혜(전남대학교)

I. 서론

본 연구는 오랜 시간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어 교육의 변천을 평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어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은 전 세계 한국어 학습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세종학당 누적 수강생은 100만 명을 넘어섰고, 87개국 252개소에서 운영되는 세종학당은 2030년까지 350개소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 수는 2025년 기준으로 55만 명을 넘어섰으며, TOPIK iBT와 TOPIK 말하기 평가 도입은 한국어 평가의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치들은 한국어 교육의 양적·질적 성장의 결과이자, K-콘텐츠가 확장시킨 문화적 파급력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장은 동시에 Next K 시대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AI 기술의 도입은 교육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지만, 평가의 공정성과 교사의 역할 축소, 자동화의 윤리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언어교육에서 평가는 학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학습의 최종 단계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개발과 수정에 있어 교육 목표의 수립, 교수 및 학습의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이고 순환적인 과정이다. 평가를 통해 그동안 이루어진 교육 활동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교육과정에 활용되어 교육 목표와 교수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학습자에게는 언어 능력을 진단, 평정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해 줌으로써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평가를 통해 얻은 결과들은 언어 평가를 위한 연구 자료로서도 공헌하게 된다(장은아, 2011:352).

본 연구는 한국어교육의 변천을 조망하는 데 있어 한국어 교육과정, 교육 기관, 학습자, 정책 등 여러 관점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평가는 단순히 학습 결과를 확인하는 도구를 넘어, 교육과정의 목표가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핵심 지표이자 교육의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한국어능력시험, 기관별 성취도 평가, 진단·배치 평가 등 평가 체제의 변화는 곧 한국어교육의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나아가 국가 및 기관 차원의 언어

정책 변화를 집약적으로 반영해 왔다. 더 나아가 디지털 TOPIK, AI 기반 평가, 온라인 진단 시스템 등 최근의 흐름은 평가가 교육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미래 한국어교육을 설계하고 재구조화하는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어 평가의 변천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과거 한국어교육의 궤적을 재구성하는 동시에, 향후 한국어교육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방향과 과제를 전망하는 데 효과적인 분석 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어 평가의 변천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술적·사회적 변동 속에서 한국어 교육이 직면한 과제를 검토한다.

II. 한국어교육의 시기 구분

한국어교육의 변천을 논의할 때는 어떠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기를 구분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 구분의 기준은 광복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 성장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어교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변화가 그 기준이 될 수도 있다. 백봉자(2001)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경제적 성장을 기준으로 하여 네 시기로 나누었다. 제1기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설립부터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이전의 초창기(1959~1975년), 제2기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여 미국에 국한 되었던 한국어 학습자의 국적이 유럽, 일본 등으로 다양해지고 학습자의 수가 늘기 시작한 변화기(1976년~1988년), 제3기는 한국이 무역 상대국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학습동기도 다양해진 발전기다(1989년~2000년). 마지막으로 4기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2001년으로 구분하였다.

조항록(2005)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시기를 태동기(1959~1980년대 중반), 도약기(1980년대 중반 이후~1990년대 중반), 안정적 성장 및 확대기(1990년대 후반~)의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조항록(2005:4)에서는 ‘안정적 성장 및 확대기’를 한국어교육이 그 동안 축적된 내적 역량을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재도약을 시도하고 다시 한번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라고 정의하였다.

강승혜(2020)에서는 한국어 학습 목적의 관점에서 60년간의 한국어 학습자 변천을 다섯 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있다, 1950년대~1960년대의 선교 목적 한국어 학습자, 1970~1980년대 초의 일본 학습자 및 천주교 신부 학습자,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이전의 다양한 목적의 학습자, 1990년대 말~2000년대의 학문 목적 중국인 학습자, 2000년대 말~2010년대 다양한 국가의 한국어 학습자 증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시대 구분을 2025년인 현 시점에서 참고할 때에 몇 가지 고민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국내 대학에 최초로 한국어교육기관이 설립된 1959년을 태동기

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에 있었던 한국어교육 기관 및 관련 활동들을 바탕으로 태동기를 앞당겨야 할 것인가다. 백봉자(2001)과 조항록(2005)에서는 동일하게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설립된 1959년을 한국어교육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여러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오래전부터 조선어 통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으며 1705년 전후에 발간된 것으로 알려진 <교린수지(交隣須知)>와 같은 교재가 남아 있다. 1877년에 발간된 최초의 근대적 한국어 교재인 <Corean Primer> 등의 교재를 통해 서양인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 또한 1920년~1935년에는 선교사 중심의 The Language School에서 근대적인 한국어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 교육기관은 광복 이후 다시 운영되었다.

또한 백봉자(2001)의 구분은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한 구분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경제의 발전은 한국어 국내외 학습자의 증가와 변화, 관련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이 진행된 지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어교육의 시대 구분에 있어 시대적 변화, 경제적 발달과 함께 한국어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며, 2025년의 시점에서 새로운 시점의 시대 구분도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교육의 역사를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한다. 먼저 1기는 1944년까지의 태동기이며, 2기는 광복 이후 국가의 공식 언어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내 대학에서 교육기관이 설립되며 독자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도약기(1945년~1970년대 중반)이다. 3기는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일본어권 학습자가 증가하고 학습자의 다양화가 진행된 확장기(197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4기는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한국어교육이 크게 발전하고 해외 대학 입시 과목으로 한국어가 지정되고 유학생이 증가하였으며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이 자리잡은 팽창기(1990년대 중반~2019년)다. 마지막으로 5기는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교수가 진행되고 AI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한국어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진 혁신기(2020년 이후~)로 구분한다.¹⁾ 팽창기는 K콘텐츠가 세계로 나아간 한류의 시기이며, 2020년대인 혁신기는 'Next K'를 고민하게 하는 시기라 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특히 한국어 평가가 양적, 질적 측면에서 크게 발전한 팽창기와 한국어교육의 현재와 미래가 포함된 혁신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한다.

1) 이러한 구분은 현재 본 연구자가 공저자로서 집필 중인 최은지 외(2025)의 시대 구분을 일부 참고한 것임을 밝혀 둔다.

III. 팽창기의 한국어 평가

팽창기의 한국어 평가는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 발족과 같은 정부의 세계화, 국제화 정책과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과 함께 한국어교육이 발전하고 학습자의 다양화와 확대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한국어 평가는 국가 정책의 방향과 긴밀하게 맞물려 체계화되고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한국어능력시험의 시행,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 외국인 노동력 유입 및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재외동포 정책(1999년 재외동포법 제정)과 한국어 세계화 기조 등이 주요 전환점이 되었다.

1) 숙달도 시험(TOPIK)의 시작

한국어 평가는 정책적 발전 동력을 기반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다. 가장 큰 변화는 국가 주도의 한국어 숙달도 평가인 TOPIK이 개발되어 시행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한국어 능력시험은 평가 본연의 기능뿐 아니라 한국어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설계에 참조기준으로 작용하는 등 한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김정숙, 2017:2). 시험의 영어 이름은 시행 초기에는 KPT(Korean Proficiency Test)로 불렸으며 이후 TOPIK(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으로 바꾸어 부르고 있다. 한국학술진 홍재단 주관으로 1997년에 제1회 시험이 실시되었고 1999년 3회부터 20회까지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11년 21회 시험부터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어능력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은 제1회 시험부터 2006년 제10회 시험까지는 연 1회,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연 2회,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연 4회, 2014년은 연 5회, 2015년부터는 연 6회 실시되었다.

TOPIK은 제1회 시행부터 한국어능력을 1~6급으로 표시하는 6등급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6개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등급 평가 방식은 두 차례의 변화를 거쳤다. 1회~9회까지는 6개 등급별로 각각의 시험을 출제하여 6종의 시험으로 6개 등급을 평가하였고, 10회~34회에는 초·중·고급의 3종 시험으로 초급(1, 2급), 중급(3, 4급), 고급(5, 6급)을 평가하였다. 2014년에 이루어진 한국어능력시험 개편 이후 35회부터는 한국어능력시험 I, II의 2종 시험으로 TOPIK I은 1, 2급을, TOPIK II는 3~6급을 평가한다. 합격 기준은 34회까지는 영역별 과락이 존재하였으나,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진 후 35회부터는 과락 제도가 없어졌다.

평가 영역은 1회부터 34회까지는 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의 4개 영역을 평가하였고 모든 등급에 쓰기 시험이 있었다. 반면 개편 이후 35회부터는 어휘·문법 영역이 없어졌고 TOPIK I에서는 쓰기 영역도 제외되어 듣기와 읽기 영역만을 평가하게 되었다. 쓰기 평가의 방식은 과제 수행 중심의 직접 평가 방식으로 변화하여 숙달도 평가로서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나는 평가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에도 한국어능력시험에서 말하기 평가와 iBT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²⁾

초기에 한국어능력시험은 일반 목적 한국어능력시험으로 개발되었으며 국내 거주 외국인, 재외동포의 한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서의 성격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2004년에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5만 명까지 늘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방안(Study Korea Project)’을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유학생 유치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한국어능력시험에 학문 목적의 성격이 더해지기 시작하였다.³⁾ 이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한국어에 관심이 높은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지역을 확대하였고, 한국어능력시험 결과를 국내 대학 입학 어학 능력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유학생 선발 어학 능력 기준의 표준화, 체계화에 기여하였다. 한국어능력시험은 국내 대학 입학 및 졸업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의 장학금 지급 기준, 정부초정장학생(GKS)에게 추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 외국인이 국립국어원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 2, 3급을 취득하고자 할 때의 응시 자격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아가 한국어능력시험은 국제 결혼 이민자 비자를 받기 위한 조건, D-4 비자 어학 연수생이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조건, E-7-1과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 취득 조건 등 여러 비자 취득 및 연장, 한국 기업 입사를 위한 어학 능력 판단 기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국내 대학 부설 기관에서의 한국어 평가

1990년대 들어 국내 한국어 학습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이 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10여 곳이었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은 2005년대 중반에는 80여 개, 2019년에는 244개 기관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평가 체계 역시 발전하였다.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평가 현황을 살핀 김유정(1999), 조항록 외(2002), 최은규(2006), 이준호(2009), 구민지·박소연(2016), 김윤희(2018), 허유경(2018), 김정숙(2021)과 같은 연구를 통해 이 시기에 이루어진 배치 평가, 성취도 평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조항록 외(2002)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에 연세어학당의 배치 평가는 등급제를 택하고 있으며 평가 영역은 말하기와 쓰기 영역이었다. 쓰기 평가 시 읽기 이해력을 측정하는 지문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다. 말하기 영역의 경우 1급에서는 간단한 w-h

2) 한국어능력시험의 발전사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 및 김정숙(2017)을 참고하였다.

3) 이후 2023년 8월에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방안(Study Korea 300K)’을 발표하여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5년 현재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25만 명을 넘어섰다.

question을 택하고 있으며 2급 이후에는 서술, 설명, 비교, 가정 기능을 요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연세어학당 외에도 국내 대학의 한국어 교육기관 5곳의 배치 평가를 조사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말하기와 쓰기 영역으로 구성된 가운데 읽기 영역을 포함하는 기관도 있었다. 또한 인터뷰는 네 기관이 OPI의 인터뷰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최은규(2006)에서 조사한 4개 교육기관의 현황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대학 내 교육기관에서는 대체로 지필시험과 인터뷰의 두 유형으로 배치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성취도 시험이 정해진 배점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는 데 반해 배치 시험은 점수로 평가하지 않고 지필시험과 인터뷰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최은규, 2006:293). 지필시험은 주로 작문 능력 및 어휘·문법 영역을 측정하는 시험지로 실시되고, 인터뷰는 평가자와의 일대일 면접으로 이루어지며, 인터뷰 시에 사용되는 질문지가 마련되어 있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의 배치 평가는 표현 영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전 시기에 비해 상당히 체계성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뷰를 통한 말하기 능력이 중점적인 판정 기준으로, 인터뷰 등급과 함께 지필 시험의 결과를 참고하거나 통합하여 등급을 판정하는 방식의 배치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구민지·박소연(2016)을 통해서 2010년대의 한 기관의 배치 평가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이 기관의 배치 평가 역시 말하기와 지필 평가로 이루어지며, 지필 평가는 알맞은 단어 쓰기, 조사 골라 쓰기, 어순 맞추기, 알맞은 대답 쓰기, 작문하기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빠른 평가와 등급 판정이 요구되는 배치 평가에서는 2010년대에도 말하기가 중점적인 판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대학 부설 교육기관의 성취도 평가의 모습은 이준호(2009)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준호(2009)에서는 서울 지역의 대학교 부속 한국어 교육기관 중 규모가 큰 5개 기관의 성취도 평가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기관에서 시행하는 성취도 평가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지필 평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학습자의 언어 수행 능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지필 평가 중심의 결과 평가가 아닌 ‘과정 평가’에 대한 교사들의 요구가 높기는 하나 학습 과정 중에 시행되는 다양한 학습 활동에 대한 평가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지 않아 학습 과정이 성취도 평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읽은 후 쓰기, 들은 후 쓰기 평가와 같은 기능 통합 평가보다는 네 가지 기능별 분리 평가가 이루어졌다.

2010년대 한국어 교육기관의 성취도 평가의 모습은 성취도 평가 중 말하기 평가를 분석한 김윤희(2018), 지필 평가를 분석한 허유경(2018), 2019년을 기준으로 여러 지역의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 9곳의 성취도 평가 전반을 살핀 김정숙(2021)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숙(2021)에 따르면 2000년대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평가하고 있었으나 구어 영역인 듣기와 말하기를 평가하지 않는 기관도 한 곳 있었다. 또한 어휘·문법을 별도의 영역으로 평가하는 기관

은 적었던 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어휘·문법을 읽기 영역에 포함시켜 평가하였다. 기관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2010년대에도 여전히 형식적 평가가 70%를 넘는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출석, 평소 활동, 대안적 평가가 함께 활용되고 있었다. 또한 전 기관이 일정 수준의 평균 점수를 수료 및 승급 기준으로 사용하였으며 과락 기준을 적용하는 곳도 많았다. 절반 정도의 기관에서 성취도 평가 출제자에게 제공되는 출제 지침이나 출제계획표를 마련하고 있었으며, 모든 기관이 1~3개 세트의 기출 문항을 재활용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학습한 내용을 활용하는 학습 활용 능력 또한 평가하고 있어 숙달도 지향의 성취도 평가를 지향하고 있었다. 평가 틀 또한 말하기, 쓰기와 같은 표현 영역의 채점 방식은 TOPIK의 영향으로 분석적 채점이 주요 채점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실시된 배치 평가 및 성취도 평가의 모습을 통해 1992년 의사소통중심 교수법이 한국에 소개된 이후부터 한국어 평가 역시 의사소통 중심 평가가 자리잡았음을 알 수 있다. 배치 평가는 표현 영역 중심으로 진행되는 반면, 성취도 평가는 네 영역을 평가하였다. 이 시기의 성취도 평가는 여전히 형식적 평가가 성취도 평가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평가 방식이 다양화되지는 못하였으나 점차 수행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과정 평가 등 대안적 평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평가에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움직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3) 사회통합을 위한 평가의 개발과 시행

한국어교육의 팽창기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한 시기이기도 하다.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고, 결혼이민자의 증가로 다양한 사회 정책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한국어 평가가 개발되고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소기업 등에서 인력난을 겪으면서, 1994년부터 외국인이 일정 기간 한국 중소기업에 연수한 후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기업에서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2004년에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도(Employment Permit System)’가 도입되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07).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에서는 외국인 구직자의 한국어 능력 및 한국 사회 이해 정도를 평가하여 외국인 구직자 명부 작성 시 선발 기준으로 활용하고 한국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갖춘 인력을 유입하고자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을 개발하고 시행하였다(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고). 이는 한국어 평가가 산업 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EPS-TOPIK은 읽기, 듣기 영역만 시행되며 연령 제한이 있어 만 18세 이상 39세 이

하만 응시할 수 있다. 모두 선다형 문항이며, 초창기에는 200점 만점에 120점을 기준으로 한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였는데, 시험의 난도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 정한 외국인 인력 도입 퀴터의 수와 맞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겨 상대평가로 전환되었다. 업종별 최저 하한 점수 이상 득점자로서 선발 인원만큼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제조업 및 조선업의 하한 점수는 100점 만점에 55점, 그 외 업종의 하한 점수는 40점이다.

또한 EPS-TOPIK은 고용허가제의 변화에 따라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별고용허가제의 경우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특별고용허가제는 체류 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여 불법 체류를 예방하고, 지정 알선을 통해 종전의 숙련 기능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한 목적의 고용허가제다(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참고). 2025년 기준 일반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능력시험’으로, 특별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은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한국어능력시험은 재고용 외국인 근로자로 체류기간 내 자진 귀국자만이 응시할 수 있다. 출제 방식은 2004년에는 전문가 집단 출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2011년부터 공개형 문제은행 출제 방식으로, 2013년부터 비공개 문제은행 출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2013년에는 EPS-TOPIK 을 위한 ‘한국어표준교재’가 개발되어, 학습자들은 이 교재를 바탕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김명광, 2023:68-69).

2000년대 들어 결혼이민자,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노동자,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민 등 새로운 한국어 학습자층이 대규모로 등장했다. 이에 따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평가 외에도, 이주민으로서 한국 사회 적응을 목표로 하는 한국어 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2009년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이 도입되었다. 2009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이 20개에 불과하였으나 2024년 335개로 증가하였다. 참여자 수도 2009년 1,331명에서 2019년 56,535명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 2024년에는 전년대 비 22.3% 증가한 70,949명이 교육에 참여하는 등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25). 2017년 8월 개정된 ‘국적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2018년 3월부터 귀화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귀화용 종합평가로 대체되어 실시되며, 영주권 자격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 및 실태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활용된다. 또한 그 외 체류 자격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되고,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비자 신청 시 한국어능력 입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이민자의 법적 자격 심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주권·귀화 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어 한국어 평가가 사회·법적 자격 심사 체계와 결합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기초 수준의 0단계부터 초급 수준의 1, 2단계, 중급 수준의 3, 4단계로 이루어지며, 5단계는 ‘한

국사회의이해' 과정으로 진행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사전평가와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1~3단계평가, 4단계를 마친 후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평가, 5단계 한국사회의이해 과정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영주용, 귀화용 종합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은 모두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된다. 사전평가는 배치평가의 역할을 하고 그 외 평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의 성취 정도를 확인하는 성취도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 0단계를 제외하고 단계마다 평가가 이루어져,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가 된 이 시기의 또 하나의 특징적인 점은 다문화 배경의 자녀가 증가하여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학습이 필요한 학습자가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12년에 '한국어(KSL) 교육과정'을 고시하여 공교육 내에 한국어 교육과정을 도입하였다. 이후 2017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되어 현재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수준별 반 배치 및 한국어 능력 진단을 위해 2012년부터 KSL 진단평가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4종의 진단 도구가 개발되었다. 진단 평가는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4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급 구분 점수는 학교급 구분 없이 모두 40%와 70%를 기준으로 한다. 즉 40점 미만까지는 초급, 70점 미만까지는 중급, 70점 이상은 고급으로 판정한다. 종합 등급의 경우 어느 한 영역에서라도 3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급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김영란(2014), 홍종명(2015), 이인혜(2018) 등의 선행 연구에서는 실용도 측면, 한국어 진단 정보 제공의 부족으로 인해 개발된 진단 도구가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KSL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령기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의사소통 한국어 외에도 '학습 한국어'가 중요한 부분하게 다루어지는데, 심혜령 외(2017:157)에서는 진단 도구 및 성취도 측정 도구에는 학습 한국어 영역이 없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후 한국어(KSL) 성취도 평가가 개발되었는데, 성취도 평가는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을 포함하여 선다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성취도 판정 점수가 80점이 되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원적 학급(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교육부 외, 2021:2).

2019년부터는 한국어 수준을 진단하여 진단 정보에 맞는 학습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국어능력 진단-보정 시스템'이 개발,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학생이 입학하면 시스템 등록을 통해 상시로 한국어능력을 진단하고, 성취도검사 및 보정학습이 반복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한국어 교육과정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원적학급 복귀가 가능해지며, 동시에 척도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성취도 평가의 경우와 같이, 교사의 판단하에 4단계 수준 미달인 경우에도 원적학급 복귀 여부 결정도 가능하다. 이는 해당 평가의 대상이 학령기 학습자임을 고려한 것이며 이상적인 평가란 시험뿐만이 아니라 교사의 관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고려한 것이다.⁴⁾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통합을 위한 세 가지 한국어 평가는 다음의 표로 정리해 볼

수 있다.

[표 1] EPS-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KSL 평가 비교

구분	EPS-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	KSL 평가
목적 및 정책 연계	외국인고용허가제(EPS) 선발 기준 마련, 산업 인력 정책과 직접 연계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평가 및 사회·법적 자격 심사와 결합(영주·귀화·비자 가점/면제 등)	공교육 내 한국어 지원·배치, 학습격차 보정(교육부 KSL 교육과정)
대상·응시 자격	만 18-39세 외국인 구직자, 일반·특별고용허가제(자진 귀국 숙련 인력 재고용)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중도입국 청소년, 탈북민 등 이주민 전반	다문화 배경 학령기 학생(초·중·고)
평가 영역·형식	읽기·듣기 영역, 선다형 문항	단계별 필기+구술: 사전(배치), 1-3단계평가, 4단계 중간평가, 5단계 종합평가(영주용/귀화용)	진단평가: 듣기·읽기·쓰기·말하기, 성취도평가: 듣기·읽기·쓰기(선다형), 2019~ 진단-보정 시스템
합격·판정 방식	상대평가(업종별 하한점수 이상 + 선발 인원 성적순)	교육 이수 여부와 종합 평가 결과로 판정	진단: 40%와 70%를 기준으로 초·중·고급 판단. 한 영역 <30%면 초급 판정 성취도: 80점 미만이어도 교사 종합판단으로 원적학급 복귀 가능
운영·출제	2004 전문가 출제 → 2011 공개형 문항은행 → 2013 비공개 문항은행 출제	0단계(기초)~4단계(한국어·문화), 5단계(한국사회 이해)의 단계별 평가, '배치+성취' 이중 성격	2012 진단 도구 보급 → 2017 개정 교육과정 운영 → 2019 진단-보정 시스템(상시 진단·보정·척도검사)
활용처	구직자 명부 작성·입국 유도·현장 적응력 제고	영주권·귀화·체류자격 심사, 한국어능력 입증 면제·가점	수준별 반 배치, 보정학습, 원적학급 복귀 판단 근거

4) 해외 공교육 체계에서 한국어교육의 확장

이 시기에는 해외에서 한국어 학습자의 증가에 따라 초·중등학교에 한국어 교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대입 시험에 한국어가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1995년에 한국어가 SAT2 과목으로 채택되었고 1997년에 미국 대입 시험(SAT II)

4) 2019년에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0년부터 중·고등학교 대상, 2021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까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2020년에는 개정된 누리과정-유치원 대상 교육과정-과 한국어 교육과정(KSL)을 연계한 평가도구의 개발도 이루어졌다.

에 한국어 시험이 처음 시행되었다.⁵⁾ 이후 한국 교육부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제2외국어 또는 선택과목으로 한국어를 채택할 수 있도록 물적, 인적 지원을 하는 한국어 채택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남민우, 2022). 일본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앞두고 2000년에 개최된 정상 회담에서 일본의 대입 시험 외국어 과목으로 한국어의 도입이 결정되었다.⁶⁾ 이에 따라 2002년부터 대입 시험에서 한국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등학교에서 한국어교육이 정규 과목으로 인정되었다(오대환, 2010). 2018년에 개정된 정부의 『학습지도요령』에서 대입 시험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서 4~5학점을 이수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며, 난이도는 TOPIK 3~4급 수준 또는 한글능력검정시험(ハングル能力検定試験) 3급에서 준2급 수준, 범위는 고등학교에서 4~5학점을 3년 동안 학습한 학생의 숙달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 정도라는 정보가 기술되어 있다(진대연·요코무로 히토미, 2023:428~429).

호주는 주별로 독자적인 교육정책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입 시험 역시 주별로 차이를 보인다.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대입 시험을 연구한 안기화(2002)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1993년부터 한국어가 대학 입학시험에 해당하는 Higher School Certificate(HSC)의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고 1994년부터 시험이 시행되었다. 호주의 고등학생들은 11학년부터 2년에 걸쳐 ‘개인과 사회, 청소년 문화, 문화의 정체성, 세계’와 같은 대주제에 따른 한국어를 학습한다. 시험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영역이 있으며 말하기 영역은 1994년부터 2000년까지는 HSC에 포함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내신성적으로만 성적이 평가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주제에 관하여 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이 말한 것에 대하여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글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말하기의 주제, 형식 등을 보통 2주 전에 학생들에게 공지되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말하기의 주제는 학생들이 공부한 소주제 중 하나로 정해지며, 형식은 연설, 토론, 대담, 연구 발표 등의 형식이 된다. 또한 다른 학생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하여 글로 표현해야 하므로 이해 능력과 쓰기 능력도 요구된다. 호주에서 대입 시험의 한국어 과목은 주로 호주의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었으나,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Beginner 시험과 모어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를 위한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2016년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 학업 성취도 국가 자격증(National Certificate of Education Achievement; NCEA) 제도에서 한국어 시험으로 학점 취득이 가능해졌다. 뉴질랜드에서 고등학교 시기는 9학년부터 13학년까지인데, NCEA를 위한 공부는 11학년에 시작한다. NCEA는 Level 1부터 3까지 있으며, 한국어로 Level 1부터 3까지 개별 학교에서 실시하는 내신 평가, NZQA에서 실시하는 연말 시험인 외부 평가

5) 2021년에 SAT 2에 속한 모든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한국어 과목도 폐지되었다.

6) 대입시험의 명칭은 현재는 ‘대학입학시험공통시험(大学入学試験共通試験)’으로 변경되었다.

를 통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2017년부터 대학 입학을 위한 국가 자격고사인 바칼로레아에 한국어 과목이 포함되었다. 프랑스 교육부는 2016년 말에 발표한 관보 제43호(2016-177)에서 한국어를 바칼로레아 제1·제2·제3 외국어 시험 교과의 공식 목록에 포함했다. 프랑스 정부가 1993년 채택한 바칼로레아 외국어 목록을 처음으로 개정하면서 유일하게 한국어를 23번째 공식 외국어로 추가하였다.

태국에서는 2018년에 한국어가 대학입학시험(Professional Aptitudes Test: PAT) 7의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채택되었다. PAT은 PAT1부터 7까지 있으며 PAT 7은 외국어 능력 시험이다. 한국은 7번째로 외국어능력시험에 추가되어, PAT 7.7로 추가되었다. 한국어 어휘, 문법, 대화, 읽기, 한국문화 및 사회 문제가 출제된다(김지혜·차나마스펭콤분, 2019;39). 이처럼 팽창기는 여러 국가에서 대학 입학 시험의 한 과목으로 한국어가 채택된 시기로, 해외에서의 한국어 평가가 공교육 체계 안에서도 본격적으로 발전한 시기라 할 수 있다.

5) 해외 한국어교육의 확장과 평가의 체계화: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전 세계에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해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보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2년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출범하였다. 이 기관은 「국어기본법」 제19조의2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그 시작은 2008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한글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9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부, 법무부 등 7개 부처가 함께 ‘한국어 보급 확대 및 세계화 방안’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한국어 세계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11년 국어기본법 개정안에 세종학당재단 설립 근거가 포함되었고, 2012년 법 시행과 함께 재단이 공식 출범하였다. 이를 통해 그동안 여러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해외 한국어교육 사업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되었으며, 이후 세종학당은 세계 각지로 빠르게 확대되어 2025년 기준으로 87개국 252개소의 세종학당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가 도입되어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표준화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학습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세종학당에서는 세종학당에서 개발한 여러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성취도 평가 개발 초기에는 가장 먼저 개발된 <세종한국어>를 바탕으로 개발되었으며, 본 시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후 2022년에 <(개정)세종한국어>가 출간되면서 새 교재를 기반으로 한 성취도 평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있다. 또한 2017년에 듣기, 말하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세종한국어회화>가 개발되면서 같은 연도부터 해당 교재로 한 성취도 평가도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성취도 평가는 201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 세계 곳곳의 세종 학당에서 시행되고 있다. 성취도 평가 문항의 지속적인 개발은 세종학당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 및 수월성 제고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국어교육 현장의 모습과 학습자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가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달리 학습자의 한국어 이해 능력(읽기, 듣기)과 표현 능력(쓰기, 말하기)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해외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전방위에서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김지혜 외, 2018).

해외의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물리적 거리를 넘어 온라인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레벨테스트를 개발하여 온라인 학습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평가의 수준은 초급(1A~2B)과 중급(3A~4B)으로, 총 8개 등급이다. 듣기와 읽기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누리세종학당뿐 아니라 일반 세종학당 배치 평가로도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어 평가의 팽창기에는 국가 정책의 방향과 긴밀하게 맞물려 한국어 평가가 한국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뿐 아니라 해외의 한국어 학습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 등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함께 하나의 평가로 여러 시험을 치르거나 질적으로 고르지 못한 평가가 이루어지던 시기를 지나 의사소통 기능별 평가가 이루어지고, 평가의 목적에 맞게 배치평가, 진단평가, 성취도 평가, 숙달도 평가가 개발되고 체계화되어, 한국어 평가의 발전이 이루어진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IV. 혁신기의 한국어 평가와 과제

2020년 시작된 팬데믹 시기에 한국어교육 역시 변환점을 맞이하였다.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한국어교육계에 온라인 교육이 급속도로 자리 잡았다. 많은 대학에서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정을 병행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어교육에서도 ‘거꾸로 수업 (flipped learning)’과 같은 방식이 활발히 활용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대면 수업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운영하던 세종학당재단은 온라인 세종학당을 개설하여, 해외에서 물리적 거리, 시간적 문제로 학습이 어렵던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이 가능해졌다. 또한 AI의 발달은 한국어 교육과 평가에 전환점을 가져왔으며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1) 평가의 디지털화와 AI 평가 담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한국어 숙달도 평가도 점차 디지털화되고 있다. 2022년에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가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2023년에는 TOPIK IBT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025년에는 TOPIK 시행의 대대적인 확대가 이루어져, PBT 6회, IBT 6회, 말하기 평가 3회로 1년에 15회의 시험이 시행되고 있다. TOPIK 지원자 수도 2014년 20만 명에서 2024년 49만 명으로 2.5배 증가했다. TOPIK 지원자 수는 2025년 기준으로 응시자 수는 55만 명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간신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어 평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숙달도 평가도 등장하였다. 세종학당재단은 2022년부터 세종한국어평가(Sejong Korean language Assessment, SKA)를 시행하고 있다. 이 평가는 듣기·읽기·쓰기·말하기의 네 가지 언어 기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해외 세종학당 및 국내외 공식 평가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평가의 디지털화에 따라 응시자의 능력 수준에 따라 문항의 난이도가 단계적으로 조절되는 단계적 적응형 평가(MST, Multi-Stage adaptive Test) 방식으로 iSKA(Internet-based Sejong Korean language Assessment) 또한 시행되고 있다. MST는 응시자의 반응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문항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짧은 시간 안에 높은 정밀도를 확보하고 학습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IELTS, TOEFL, TOEIC, HSK 등 대표적인 숙달도 시험이 iBT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ACTFL TEP(Test of English Proficiency), Duolingo English Test(DET), Versant English Test와 같은 인터넷 기반 영어 시험은 적응형 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험테스트(IELTS Indicator, TOEFL iBT Home Edition, TEP, HSK Home Edition 등), AI 기반 자동 채점 기술을 도입하는 숙달도 평가도 늘고 있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 시험장에서 집합 형태의 iBT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워지면서 험테스트 방식의 숙달도 평가가 개발, 시행된 경우가 있었다. 교육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시험 응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IBT를 총 6개국 연 3회 시행(2024년)에서 13개국 연 6회로 2배 이상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⁷⁾ 또한 교육부(2024)에서는 원격감독 기능, 문항 자동생성 및 채점 기능 등을 갖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체제 전환 사업’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이 구축되면 응시생이 시험장에 가지 않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밝히며 iBT에 이어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험테스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진전은 한국어 숙달도 평가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긍정적으로는 응시 기회 확대, 평가 접근성

7) IBT 시행 국가 현황: (2024)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 (2025) 2024년 시행 국가 + 신규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국(괌),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교육부, 2024)

향상, 채점의 신속성과 객관성 제고, 개별화 평가 가능성 등이 언급된다. 반면, 세계 각지의 디지털화 정도에 따른 접근 가능성, 원격 감독의 보안과 윤리 문제, AI 채점의 공정성과 편향성, 시험 운영의 비용 증가, 시장성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교실 한국어교육과의 정합성 문제 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평가의 디지털 전환이 제기하는 가능성과 딜레마는 앞으로 한국어교육이 기술 기반 언어교육 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확산과 국제통용성의 대두

혁신기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확산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는 점이다. 특히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문화 교류 심화, 그리고 한국어의 ‘실용적 언어’로서의 위상 상승은 여러 국가에서 한국어를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하거나 제1·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움직임을 가속화하였다. 청소년기는 언어적 정체성과 문화적 감수성이 형성되는 시기인 만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과목 개설은 학습자들이 보다 이른 시기에 한국어 학습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중언어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국어는 이들의 언어 목록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며, 장기적으로 이들이 한국과 세계를 잇는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도 커진다(이인혜, 2025:238).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한 국가는 2014년 11개국에서 2024년 24개국으로 2.2배 증가했고, 대학입시에 한국어를 채택한 국가는 2014년 4개국에서 2024년 10개국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베트남은 2021년 한국어를 고등학교 제1외국어로 공식 채택하여 영어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였다. 팽창기 이전에 해외의 한국어 학습자는 해외동포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팽창기에 이어 혁신기의 해외 한국어교육은 세계 여러 국가의 공교육 체계와 직결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TOPIK 성적이 국내 대학 및 취업, 비자에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해외 대학 입학시험 자료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022년 6월 홍콩시험평가국과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2025년부터 홍콩 중고등과정시험(홍콩대입시험, Hong Kong Diploma of Secondary Examination, HKDSE)에서 한국어 과목 성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예다. 그 외의 국가에서도 TOPIK을 국제적 수준의 공인 외국어 자격 시험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TOPIK의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김정숙 외, 2025:111).

이처럼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이 공교육으로 확대되면서 한국어 교육과정과 평가의 ‘국제통용성’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 한국어교육기관이나 세종학당에서 개발·운영해 온 교육과정과 평가는 비교적 독자적 기준에 따라 설계될 수 있었지만, 해외 공교육 체제에서의 한국어 평가는 각 국가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 외국어 평가 체계와 연동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른 외국어 평가 기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어 평가는 주로 6등급 체계를 따르는데 한국어 평가에서 5급 성취가 CEFR·ACTFL 등 다른 외국어 시험의 어떠한 수준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밝히는 국제통용성 확보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최근 국제 통용성 확보를 위한 평가 연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정숙 외(2023)에서는 TOPIK을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과 연계하였고, 교육부에서 2021년에 고시한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역시 CEFR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되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평가의 국제통용성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평가 등급과 국제 기준 간의 세밀한 정렬 실증 연구, 언어권별 난이도 차이 분석, 문화적 편향 문화 검증, 시험 결과의 국가 간 상호인정 체계 구축, 다양한 목적의 한국어 학습자를 반영한 평가 구조 설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확산은 한국어 평가 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보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3) 국내 인구 구조의 변화와 평가의 과제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구 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추세다. 이에 따라 한국어 평가의 역할도 변화, 확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23년에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으며 외국인 유학생은 2025년 기준으로 25만 명을 넘어섰다.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 전용 대학(학부)’를 개설하는 대학도 늘고 있으며, 많은 대학에서 유학생 입학 기준이 되는 한국어 성적을 낮추고 있다. 또한 유학생을 유치하는 방안 중 하나로 영어트랙을 개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유학생이 증가하면 이들의 한국어능력을 적절히 진단하고 배치하기 위한 진단 평가, 배치 평가의 개발도 중요해진다. 이러한 진단 및 배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진단 평가의 도입을 고려하는 대학도 늘고 있으며, 온라인 진단 평가의 개발, 이를 위한 평가 체계의 검토 역시 중요해질 것이다.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팽창기에 살펴 본 학령기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KSL 교육과정, 사회통합프로그램, EPS-TOPIK 등의 평가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최근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과정이 개발되었고(이준호 외, 2023),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도 개발되고 있으나(이준호 외, 2024 등)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평가는 사회통합 평가 및 TOPIK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어 숙달도 평가는 주로 일반 목적 및 학문 목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직업 목적의

숙달도 평가는 활발히 연구되지 못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의 한국어 평가는 학습자의 목적과 배경이 다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목적별 평가 다원화, 연령·배경 친화적 평가 설계, 직업 목적 평가의 개발, 국제통·용성 확보, 디지털 관련 문제 해결 등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V. 결론

참고문헌

- 장승혜(2020). 한국어교육 60년을 통해 본 한국어 학습자의 변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56, 1-26쪽.

이인혜(2025).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의 성과와 전망,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 동향과 발전 방향. 고려대학교 한국언어문화학술학술연구소, 도서출판 하우, 238-280쪽.

교육부(2024). 한국어능력시험, 2025년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IBT) 응시 기회 대폭 확대 – 총 6개 국 3회 응시에서 총 13개국 6회로 2배 확대 -. 교육부 보도자료(2024년 10월 10일).

김명광(2023). EPS-TOPIK 기능과 효과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20(1), 61-88쪽.

김영란(2014). KSL 한국어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9-3, 국어교육학회, 60-92쪽.

김윤희(2018). 한국어 말하기 성취도 평가 방안 연구–핵심 평가 구인 설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지(2023).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 소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학술대회. 246-256쪽.

김정숙(2017). 한국어능력시험 20년 발전사와 최근 동향 –1997년 제1회 시험부터 2016년 제52회 시험까지-. *한국어교육*, 28(3), 1-24쪽.

김정숙(2021). 한국 내 한국어 교육기관의 성취도 평가 조사 연구. *Journal of Korean Culture, 한국어문화국제학술포럼*. 52권, 229-256쪽.

김정숙·이준호·이정희(2025).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유럽공통참조기준(CEFR)의 등급 기술 비교·연계 연구. *한국어교육*, 3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09-138.

김지혜·이선영·박진옥·노정은(2018). 세종학당 성취도 평가 응시 현황 및 결과 분석 연구. *한국어교육* 29(3). 55-82쪽.

김지혜·차나마스펭솜분(2019). 태국 중등학교 한국어 수업의 제(諸) 문제 – 태국 중등학교 교사 및 학습자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 166. 31-62쪽.

남민우(2022).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교육의 발전과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교육광* 8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0-33쪽.

백봉자(2001). 교재와 교수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육의 역사와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526. 11-31쪽.

송향근(2009). 한국어 교육의 평가 연구 고찰. *이중언어학* 41. 209-227쪽.

심혜령 외(2017), 2017년 한국어(KSL)교재개발기초연구, 국립국어원 2017-01-49, 11-1371028-000694-01.

안기화(2002). 호주의 한국어 평가방식·실태 및 평가 내용 및 개선 방법 모색 –NSW 주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10, 343-363쪽.

이인혜(2018). 「WIDA 평가 고찰을 통한 한국어 (KSL) 교육과정 진단평가 개선 방안 탐색」 .

- 한국어 교육 29(1): 163–197. 국제한국어교육학회.
- 이준호(2009). 한국어 수행 평가의 원리 및 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준호 외(2023).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교육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국립국어원.
- 이준호 외(2025).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에 따른 평가체계 개선 정책연구(2단계). 국립국제교육원.
- 임채훈(2025).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 자료집. 11~30쪽.
- 정명숙(2014). 주제토론 3: 한국어능력시험 18년의 역사.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4. 46–48쪽.
- 조항록(2005). 국외 한국어 교육의 발달 과정과 특징 1 –태동과 도약-. 한국어교육, 16(1), 249–276쪽.
- 조항록·조현선·한송화·곽지영(2002). 한국어 배치고사 개발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배치고사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27, 417–493쪽.
- 진대연·요코무로 히토미(2023). 「일본의 국가 수준 한국어 교육과정 논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 제35차 춘계학술대회』,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427–435쪽.
- 최은규(2006). 유형별로 본 한국어 능력 평가의 실제와 과제 – 배치 시험과 성취도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17–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89–319쪽.

토론문

정원기(한국교원대학교)

본 논문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대를 맞아 빠르게 변화하는 한국어교육의 변천 과제 중 한국어 평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펼치고 평가와 관련된 여러 과제를 제시하여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한국어 교육의 목적별 평가와 숙달도, 성취도 평가의 과제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본 토론자는 본 논문에 대한 질의 몇 가지를 통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한국어교육의 숙달도 평가인 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 제시를 하였는데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숙달도로 알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밝혔듯이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은 과락이 없어졌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능력 중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점수가 합산으로 주어지는데 이 기준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의 과연 숙달도 평가라고 할 수 있는지 본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2. 본 논문에서 혁신기 한국어 평가의 과제에서 현행 한국어능력시험의 유형 중 IBT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본 토론자 역시 한국어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발표자와 동일하게 기대감과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다. 본 발표자에게 현행 진행되고 있는 IBT 평가의 효과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묻고 싶다.
3.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현재 일반적인 토픽 하나로만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앞으로 변화되는 국내 상황에서 일반목적 학습자들보다 특수목적 학습자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한국어능력시험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묻고 싶다.

본 발표문의 경우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한국어교육 평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다라는 점에서는 한국어교육에서 분명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과제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으로 제시하였다라는 점에서 발표자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평가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되었으면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활용도가 높은 연구라고 생각한다. 이상 한국어교육의 변천과제-한국어 평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K문화 시대 궐리사의 재해석과 시민적 공유

한남수⁸⁾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문화가 세계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적 가치의 전승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의미를 얻고 소통되는지를 화성 궐리사라는 구체적 공간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792년 정조에 의해 세워진 궐리사는 오랫동안 권력과 의례의 질서 안에서만 작동했던 엄숙한 공간이지만, 오늘날에는 시민이 참여하고 경험하며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그 의미가 변화하고 있다. 전통이 단순히 의례의 형식과 제도의 틀 안에 머무를 때 그 생명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민이 참여하고, 체험하고, 다시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전통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낸다. 이 논문은 그 과정을 ‘관계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의 윤리는, 전통을 배제의 방식이 아니라 참여의 방식으로 열어두려는 문학적 태도이자 운영의 방식에 가까운 접근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의 윤리가 자리 잡을 때, 궐리사는 과거의 질서를 반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오늘날의 시민과 함께 의미를 다시 만들어가는 생명력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한국적 가치가 K문화의 흐름 속에서도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보편성을 획득해 가는 하나의 경로가 될 것이라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주제어: 궐리사, 전승, 시민적 공유, 문화기억, K문화 보편성

8) 한남수, 99tempest@naver.com

I. 왜 궐리사인가.

한류가 세계의 눈과 귀가 된지도 오래다. 누군가는 주변부의 문화가 중심을 향해 잠시 흔들림을 만든 정도로 평가하고, 언젠가 사라질 유행처럼 말하기도 한다.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 보인다. 문화는 늘 부침을 겪고, 성장과 소실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K-문화가 전 세계의 관심을 받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적 가치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시점일지 모른다.

전통은 시간이 지나면 낯설어지기도 하고, 너무 익숙해져 오히려 보이지 않기도 한다. 그렇다고 전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통은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라도 있다면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력의 근간이다. 그리고 그 기억을 붙잡고 되살리며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전혀 새로운 장소로 재현되기도 한다. 그것이 바로 화성 궐리사(闕里祠)에서도 일어났다.

정조 16년(1792)에 창건된 궐리사는 오랫동안 전통과 유교적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왕조의 도덕적 질서와 유교적 통치 이념이 이곳을 중심으로 표현됐고, 후손과 유림이 그 질서를 보존하는 거울처럼 움직였다. 높은 문턱만큼 일반 백성이나 시민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권위의 공간으로, 전통이 특정 집단의 기억 속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나 질곡의 시대를 지나면서 궐리사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림의 질서가 무너진 근대 이후에도 후손들은 제향의 전통을 형식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살려내며 기억을 전승하려고 애썼고, 시민에게 문턱을 낮추려는 시도 또한 꾸준히 이어졌다. 그 결과 행단(杏壇)을 설립하고, 석전제(釋奠祭)에 시민을 초청하고, 어린이, 성인을 위한 논어 교실을 열고, 전시실을 마련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민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는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이 변화는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

유교가 한때 권력과 질서를 뒷받침하던 이념이었다면, 지금은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재해석되는 ‘문화적 의미를’이 되었다. 아스만이 말한 ‘문화기억’이 바로 이 지점을 설명해 준다. 그에 따르면 전통은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사회가 필요에 따라 선택하고 해석하며 다시 구성하는 기억의 층위라고 보았다. 오늘날 궐리사에서 유교는 권위의 언어라기보다 시민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되는 기억의 체계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궐리사는 바로 그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공간이다.

궐리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성적도(聖蹟圖)의 활용과 판본의 비교, 궐리사의 활용과 의미, 노성 궐리사와의 비교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궐리사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지만, 이 공간을 ‘전승에서 공유로 이동하는 문

화적 실천의 장(場)'으로 읽거나, K문화의 보편성과 연결해 해석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 글은 그간 다루지 않는 지점을 새롭게 논의하는 데 있다.

특히, 궐리사가 어떻게 전승에서 공유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K문화 시대에 우리가 말하는 '보편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보편성은 철학적 개념을 뜻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서로 나누며, 그 과정을 통해 새롭게 재창조하려는 마음과 움직임, 그 속에서 생겨나는 문화적 힘(복원력)을 의미한다. 전통도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 살아남고 기억된다. 궐리사는 그런 점에서 의미있는 사례다. 과거에는 권위와 규범적 질서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전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문을 열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을 맞고 있다. 이 작은 공간에서 개인의 기억이 문화적 기억으로 확장되는 과정은 한국문화의 미래를 이해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여 이 글은 정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궐리사를 조사하며 느낀 변화와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이곳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여러 생각들을 차분히 기록하고 정리해 보려는 시도에 있다.

II. 궐리사의 형성과 변천

궐리사는 질곡의 시대를 보내왔다. 그의 역사는 단순한 사당의 건립사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 공간은 공자의 후손들이 고려·조선으로 이어지는 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정착했고, 그 후손들의 흔적이 조선의 정치적 상황과 어떻게 만났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는 '동래(東來)'라는 사건에서 시작해, 근대의 변동과 현대의 복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겹의 시간이 쌓아 만든 '기억의 지층'¹⁾을 형성한 장소로 볼 필요가 있다. 즉, 궐리사를 이해하는 일은 건물의 구조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축적된 시간과 사건, 흔적과 관계를 따라가며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1349년, 원나라 지정 9년. 고려에 시집 온 노국공주를 따라 공자의 54세손 공소(孔紹)²⁾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공소는 한림학사였고, 고려 공민왕이 된 강릉대군(훗날 공민왕)을 수행하여 귀국했다. 고려에 정착한 그는 문하시랑평장사를 지냈고

1) 아스만에 따르면 문화기억은 단일한 층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반복적으로 축적된 여러 기억의 층위가 현재 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구성되는 구조를 갖는다. 기억은 '퇴적된 지층'처럼 다양한 시기의 흔적이 겹겹이 남아 현재의 문화적 실천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지층'을 활용했다. Assmann, Aleida, 변학수, 최연숙 윤김,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5-40쪽 참조.

2) 공자의 후예들은 공 씨의 시조 孔昭(공소)를 회원군(檜原君) 할아버지로 부른다. 공소는 고려조에서 문하시랑평장사의 지위를 받았고, 회원군에 봉직된다. 고려 광종의 휘소(紹)와 동일한 명칭이라 이를 피하려 초휘(昭)로 고쳤다. 동일한 호칭에 후손들은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필자가 인터뷰했던 사무국장님 역시 70순을 넘었지만 회원군 할아버지로 호칭을 계속 사용했다.

회원군(檜原君)에 봉해졌으며, 창원을 식읍으로 받으며 가문을 세웠다. 이것이 훗날 조선 공씨의 맥을 잇는 기반이 된다.

동래는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공자의 혈통이 조선 땅에 뿌리내린 역사적 사건이다. 공소의 동래는 공민왕이 유교적 통치 기반을 정비하던 흐름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이며, 이 사건은 후대에 조선 유교 문화 안에서 다시 해석되고 기억될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 기점은 정조 시대에 결정적인 의미로 소환된다.

공소의 동래는 후손 공서린(孔瑞麟, 시호 문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다. 공서린은 조선 중종 때 사림의 한 축으로 활동한 인물로, 1507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그해 갑과로 문과 급제하여 승지·대사헌·관찰사 등 여러 관직을 두루 거친 학인이었다.

그는 권력 앞에서 말하기를 망설이지 않았고, 부당함을 바로잡으려는 뜻을 여러 차례 드러낸 인물이었다. 언로의 확대³⁾, 예제 정비, 인재 등용 등에서 보인 태도는 그의 학문적 기반과 더불어 후대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가 되었다.

임금은 한 나라 신민(臣民)을 다스리는 어른이면서 종묘 사직(宗廟社稷)의 임자로서 늘 선(善)을 쓰고 악(惡)을 물리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니, 이 생각이 늦추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대저 사람을 쓸 때에, 보통 사람이면 자격에 따라서 차차로 올려써야 하겠으나, 어질어서 소임을 잘 감당 할 수 있는 사람을 얻으면 자격에만 따라 쓰지는 말아야 합니다. 대저 이는 다 백성과 국가를 위한 생각이고, 벼슬을 가지고 사람에게 사사로이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도 상께서는 부당하다 하시니, 신은 아마도 상께서 착한 것을 좋아하는 마음이 아직 지극히 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매우 개탄하는 바가 있습니다.⁴⁾

임금과 신하는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니, 마땅히 교화로 인도하여 따르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교화를 따르도록 해야 하는데, 후세에는 교화시키지도 않고 먼저 형벌과 법을 쓰니, 자못 선도하여 따르게 하는 본의가 없다. 하매, 장령 공서린(孔瑞麟)이 아뢰기를, 민심의 좋지 못함이 요사이 더욱 심하여 종이 주인을 죽이고 아내가 지아비를 죽이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옛사람들은 비록 수령의 직에 있더라도 오히려 악을 방지하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더구나 위에서 어찌 마음쓰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공서린과 정언 황사우(黃士祐)가 전의 일을 극력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⁵⁾

1519년 기묘사화 때 조광조 등과 함께 투옥되었지만 다음 날 풀려났고, 사화의 직접적 희생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후 조정 내 과별의 역학과 사림 배척의 분위기 속에서 그는 중앙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기 어려웠고 파주·양양·성천 등 외직을 전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치적 굴곡은 그가 생애 후반에 오산으로 내려와 서원을 짓고 후학을 가르치게 만든 배경으로 볼 수 있다. 그의 낙향은 강요된 퇴장이라기보다 자신의 학문을 지키려는 그의 성품에 맞는 행보로 보인다.

3) 공서린은 임금이 널리 말(言)을 들을 수 있어야 정사가 바르게 선다고 직언한 인물이다. 그는 간관(諫官)의 기능이 약화된 현실을 비판하고, 언관 제도의 회복과 신하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상소했다.『중종실록』23권, 중종 23권, 중종 11년 1월 19일 신축 1번째기사:공서린이 어진이를 현명하게 등용해야 된다고 건의하다.

4) 앞의 실록, 『중종실록』23권.

5) 『중종실록』27권, 중종 12년 1월 20일 병신 2번째기사:조강에 나아가 『예기』를 진강하다. 공서린 등이 전의 일을 논하다

그리고 바로 고향 오산에서의 시간은 후대 궐리사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 그의 후손들은 이 지역에 뿌리를 내렸고, 정조는 이 흔적을 발견해 국가 차원에서 '궐리사'를 건립하게 된다. 즉 공서린의 오산 정착은 조선 유교의 정치·윤리적 흐름이 이 지역에 머무르게 한 '역사의 작은 회랑'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래(東來)의 계보와 오산 정착의 흐름은 기억이 장소를 만들고, 장소가 전통을 잉태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근원이기도 하다.

정조는 이러한 뿌리를 바로 알아본 것이다. 1792년, 정조는 사도세자의 능을 화성으로 옮기고 새로운 도시 질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서린 후손의 흔적을 발견한다. 그리고 중국 곡부 공씨의 세계와 조선 공씨의 계보가 정확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유적지를 본격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구성하며 궐리사가 창립된다. 정조는 곡부(曲阜)의 '궐리(闕里)'라는 공자가 태어난 곡부의 지명을 그대로 가져와 사당 이름을 붙인다. 특히 친필 편액(사액賜額)과 내각에 보관했던 공자의 영정을 내려, 공신력과 지위를 부여한다.

우리 나라에 들어온 공자의 자손을 우대할 방도를 강구하라. 예조(禮曹)와 전조(銓曹)로 하여금 함께 상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곡부(曲阜)의 성인(聖人)께서 우리나라에 남기신 자손을 극진히 우대하여 사문(斯文)을 진작시키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다.⁶⁾

여기서 정조의 선택이 단순히 유적을 복원하거나 사당 하나를 짓는 단순한 사건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성의 상권과 정치 권력이 이미 노론에게 집중되어 있었던 만큼, 정조는 새로운 도시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화성을 선택했고 이곳을 제2의 정치·문화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華城은 莊子의 「天地編」에 나오는 '華人祝聖'의 고사에서 유래한 지명이다. 즉 華라는 지방에 봉해진 어떤 사람이 요임금에게 壽, 福, 多男을 기원하자, 요임금은 사양하면서 "수는 유품이 많고, 부는 일이 많으며, 다남은 걱정이 많은 법이다. 이 세가지는 덕을 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서 정조는 화성이란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의 무궁함과 풍요로움, 그리고 번창함을 기원하는 말이고, 국왕의 입장에서 볼 때 "요임금처럼 덕정을 폄는 정치를 하라"는 뜻이라고 하여 화성으로 명명했다.⁷⁾

사도세자의 현릉원(顯隆園)을 화성에 조성한 것도 부친의 명예 회복뿐 아니라 정조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공서린 후손들의 흔적을 다시 살핀 것이다. 오산 일대에 조용히 남아 있던 이 작은 흔적은 정조에게 '새로운 도시의 정신적 중심'을 구상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던 것 같다.

6) 『정조실록』, 1권, 35권, 정조 16년(1792) 8월 21일 (정해) 1번째 기사: 曲阜孔氏(곡부 공씨)를 우대하는 방도를 상정하여 아뢰도록 명하다.

7) 박현모, 「정조의 정치와 수원성: 화성 건설의 정치적 의미」, 『한국과 국제정치』, 2001, 3쪽

정조는 중국 곡부 공씨의 세계와 조선 공씨의 계보가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한 뒤, 이 유적지를 단순한 후손의 터전이 아니라 새로운 유교적 상징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공간이 조선의 공식 의례 체계 안에서 제도적 위치를 갖도록 하였다.

이것은 전통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장면이다. 정조는 궐리사를 사도세자의 추승, 화성의 도시 계획, 새로운 유교 정치 이념의 구현이라는 맥락 속에서 재해석했고, 그때 궐리사는 전통의 공간이면서도 동시에 ‘새로운 전통의 생산지’가 되었다. 앙리 르페브르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관계 속에서 생산된다.”⁸⁾ 것을 강조했다. 궐리사는 정조가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 속에서 ‘국가가 생산한 공간’이 된 셈이다.

궐리사의 부침의 역사는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과 함께 위기가 시작된다. 이 공간은 단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번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장소이다. 전통의 공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견고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와 시대의 요구 속에서 때로는 사라지고 또다시 되살아나는 과정을 반복한다. 1871년, 서원철폐령은 서원들이 본래의 교육 기능을 넘어 지역 유림의 결속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어버렸다는 비판이 커졌고, 그 결과 전국의 사액서원이 대대적으로 정리됐다. 궐리사 또한 예외일 수 없었고, 창립 이래 가장 큰 변곡점을 맞는다.

그러나 전통은 생각보다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는 듯 보였던 궐리사는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되살아났다. 1894년, 사람들은 성묘 구지에 제단을 임시로 세워 석전제를 봉행했고, 비공식적이지만 전통을 잊기 위한 조용한 복원이 시작됐다. 1901년(광무 5년) 가을, 공자의 76세손 공재현은 중국 산동성에서 『성적도(聖蹟圖)』 108쪽을 확보했다. 이 그림들을 모사·관각하여 간행한 『공자성적도』는 궐리사의 복원과 전통 재생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 것이다. 이는 전통의 외형뿐 아니라 정신을 이어 가려는 후손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이다.

1894년 고종 31년에 사람들이 성묘구지에 설탕을 하고 매년 3월과 9월에 석전을 봉행했죠. 광무 4년 1900년에 다시 장례원에 건의 성묘를 중건하고 영정을 봉안했습니다. 1924년 신구재림과 원근 사람들이 모여 제전 마련을 위한 성금을 전개하여 당시 4천 3백여 평의 제전을 마련했으며 다음 해 한 유림이 1천 5백여 평을 제전으로 현납했어요. 향자 마련에 어려움을 면했죠. 이 시기 궐리사의 운영주체는 사람이 되어 유도사 유사 상의 등의 직제를 두고 춘추 석전과 삭망 분향으로 이어왔습니다. 1924년에는 유림들이 제전을 마련하기 위해 성금을 모았고...⁹⁾

이처럼 전통은 하나의 고정된 실체라기보다, 시대마다 다른 주체들의 요구와 기억이

8) 앙리르페브르, 앞의 책.

9) 曲阜孔氏代宗報, 『曲阜孔氏大宗會』, 창간호, 1999, 44쪽.

개입하며 재정렬되는 역사적 구조로 보아야 한다. “높은 지위가 낮은 지위로 혹은 반대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과거의 권력체나 새로운 권력체가 세력을 잡아 그때까지 권위를 누렸던 세력들이 축출될 수 있는”¹⁰⁾게 정치적 토대와 맞물린 정세이다. 궤리사의 변천은 전통이 어떻게 단절 이후에도 기억의 작용을 통해 다시 구성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공간을 지탱해 온 힘은 근엄한 제도나 권력의 명령이 아니라 “이곳을 기억하고 싶다”,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잊는 작은 실천들이었다. 공소의 동래, 공서린의 학문적 기반, 정조의 화성 구상, 이어지는 혼철과 복원, 다시 재창건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시간의 조각들이 이어 붙으며 궤리사는 하나의 ‘전통적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에릭 흉스봄이 말했듯 전통은 과거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현재의 필요 속에서 다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¹¹⁾ 궤리사는 바로 그런 ‘만들어진 전통’의 대표적 사례이다. 작은 기억과 실천이 모이고, 여기에 국가가 하나의 해석을 부여하면서 지역의 기억은 점차 사회적 기억이 되었고 종교적 제의 공간은 정치적 상징 공간으로 격상되었다.

근대 이후에는 다시 사람의 복원 노력, 시민의 참여, 후손들의 지속적 관리 속에서 그 의미를 다시 만들어왔다. 이처럼 궤리사의 역사는 전통이 언제나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권력, 지역, 후손, 시민 등 여러 주체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공간을 해석하고 이어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전통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다시 이어 붙여졌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전통이 어떻게 ‘전승’의 형태에서 ‘공유’의 형태로 이동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문을 닫았던 시기와 다시 살아남기 위해 문을 열었던 시기가 공존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궤리사가 어떻게 과거의 폐쇄적 질서를 넘어서 오늘날 시민의 공간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는지,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I. 궤리사의 전승과 공유의 공간으로의 변화

필자는 처음 궤리사를 방문했을 때 유독 눈을 떼지 못한 곳이 있었다. 입구에 들어설 때 마주하는 작은 하마비(下馬碑) 비석이다. “말에서 내려라”라는 말이다. 그러나 말을 탈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다. 이 간단한 문구가 바로 궤리사의 상징

10) 빅터 터너, 강대훈 옮김, 『인간사회와 상징 행위』, 황소결음, 2018, 53쪽.

11) 에릭 흉스봄, 장문석, 박지향 공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5–35쪽 참조.

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 구조물로 보았다. 이는 배제나 금령의 표시라기보다 제향(祭享)과 강학(講學)의 공간이며, 마음을 가다듬고 들어와야 한다는 예의의 표식이며 이 공간의 성격을 규명하는 또 다른 문(門)의 경계라고 보았다.

하마비는 궐리사의 폐쇄성을 상징하기보다는 “이 공간은 일상의 시간과는 다른 학문과 예의의 질서를 필요”로 하는 유교적 공간 인식의 흔적이고 그 질서는 공자에 대한 예외 없는 승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궐리사가 지닌 의미는 이 표식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궐리사의 역사는 어떤 주체가 전통을 지키고, 누가 그 전통을 다시 복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그 전통이 마음을 나누는 장소로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긴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 흐름은 크게 유림에서 후손의 시대 다시 시민의 시대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정조의 사액으로 궐리사가 국가적 제례의 무대가 되면서 이 공간의 전승을 실재로 지키고 유지한 이들은 지역 유림이었다. 오늘날 후예들은 의례의 절차, 제구의 배치, 헌작의 순서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고증하고 보완해 가며 전통의 흐름을 이어 왔다. 오늘날 후손들은 이 고증을 위해 지금도 성균관 유도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정확한 의례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교류한다.

성균관유도회는 독립운동가이자 교육자인 심산 김창숙 선생이 민족의 중흥과 대동세상의 구현을 위해 설립한 생활 유교 실천 조직입니다. 성균관유도회 총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광역시도본부와 300여 지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자를 비롯한 성현의 말씀을 익혀 인격을 도야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도덕과 예의, 전통과 가치를 바탕으로 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바른 의례문화의 연구와 보급,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 유교문화의 체험과 전승은 국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입니다. 유림의 발전을 위해서는 석전의례의 연구와 정립, 유교문화 콘텐츠 개발과 경영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¹²⁾

이 시기의 궐리사는 ‘배타성’이라기보다 형식의 엄격함을 통해 전통의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방식이었다. 전통은 관성적으로 흘러간 것이 아니라 지키려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노력 속에서 유지되었다. 그 노력은 후손들의 의지와 희생으로 연결된다.

1871년 서원철폐령으로 궐리사는 국가적 제도 속에서 완전히 이탈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전통이 사라진 시점이 아니라, 오히려 누가 전통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가가 드러난 시기였다. 궐리사를 다시 일으킨 주체는 공자의 후손과 유림이었다. 그들은 제단을 다시 세워 석전을 봉행하고, 사당의 외형과 의례의 맥락을 가능할 만큼 복원해 나가려 했다.

특히 공재현이 중국에서 들여온 《공자성적도 孔子聖蹟圖》는 단순한 유물의 확보가 아니라 전통을 기록이나 이미지로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며 전통의 “객관적 복원”이기도 하다. “전통을 혁명적으로 타파하든 아니면 보존하든 간에 전통은 이성의 자유로운 자결

12) 「성균관유도회총본부」, <http://www.skkca.kr/department/greetings01.php>, (검색일자: 2025년11월14일).

(自決) 원칙에 대립되는 추상적 대립물로 사고된다. 전통의 효력은 이성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고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의 삶과 생각을 규정하는 것”¹³⁾으로 후대의 노력을 계속된다. 그 후 판각본 간행과 제전 확장, 토지 현납 등이 이어지면서 사당의 공간적·정신적 기반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다. 엄중한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 이러한 복원 과정은 전통이 단지 국가 권력에 의해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작은 선택과 실천에 의해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승의 주체가 유림에서 후손으로 이동한 시기이며, 이 흐름은 전통이 시대에 따라 해석의 주체를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리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는 1993년 재창건 이후 다시 찾아온다. 후손들은 석전제의 지속과 더불어 이 공간을 지역사회와 나누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는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일상적인 학습·문화 활동을 통해 전통을 현재적 의미 속에 위치시키려는 시도이다.

어린이 예절 교육, 한문강독을 넘어 눈어 강독은 유교 교육을 일상에 맞게 재맥락화 하려는 노력이다. 그밖에 서예, 소규모 문화 프로그램 등은 전통이 단순히 제의의 반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학습과 경험 속으로 스며들고자 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은 궤리사가 ‘유림의 전유물’에서 ‘지역사회의 기억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통은 언제나 엄숙함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작은 교육적 경험, 반복되는 만남, 일상의 참여가 축적되며 전통은 다시 삶 속에서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오늘날 궤리사가 지닌 의미는 바로 이러한 생활적 전승의 누적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살펴보면 전승과 공유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전승이 있었기에 공유가 가능했고, 공유의 확장이 오히려 전승의 지속성을 강화했다. 유림이 의례의 틀을 유지했고, 후손들이 훼철 이후의 기억을 복원했으며, 시민이 오늘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 전통을 다시 해석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방을 통해 다양한 행동 양식을 배운다. …행위는 결코 완전하게 성문화할 수 없다. 일상의 예절이나 습관, 윤리 같은 다른 영역은 아직도 모방 전통에 의존한다. …내부와 외부 사이의 순환 혹은 피드백식 상호작용을 통해 다시 발전한다. 의식과 기억의 개별적 생리와 심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것들은 다른 개인들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체계적 설명을 요한다.¹⁴⁾

궤리사가 보여주는 역사의 점진적 변화는 앞서 서론에서 말한 보편성 즉 사람들의 기억, 경험, 작은 실천 속에서 다시 구성되는 복원력 즉 문화적 힘이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결국 “우리의 역사의식을 채워주는 것은 과거 역사를 메아리로 들려주는 다양한 목소리들이다. 과거 역사는 그러한 목소리들의 다양성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전통의 본질을 규정한다.”¹⁵⁾다

13) 한스케오르그 가다며, 임홍배 옮김, 『진리와 방법』, 문학동네 2012, 158쪽.

14) 얀 아스만, 김구원, 심재훈 옮김, 『문화적 기억과 초기 문명』, 푸른역사, 2025, 28–29쪽.

15) 한스케오르그 가다며, 앞의 책 162쪽.

시 돌이켜 보자, 성적도를 다시 가져오려는 혐난한 여정, 정조가 이 공간을 정치·학문적 질서의 중심으로 재배치한 선택, 그리고 근대의 후손과 시민들이 이어온 기억의 실천이 궤리사가 단순한 유교 의례 공간이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기억의 장치’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장치는 시대가 바뀔 때마다 전승의 의미를 새롭게 바꾸어 왔고, 그 변화의 연속은 오늘날 K문화가 세계에서 공감을 얻는 ‘보편성의 감각’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화기억이 어떻게 보편성의 개념을 재구성하고 한국문화의 감수성과 만나게 되는지를 논의하겠다.

IV. 보편성의 재정의와 K문화 시대의 새로운 감수성

쉽지만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담론이다. 그러나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보편성은 시대를 흐르는 말들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힘에 가깝다. 보편성이라는 말은 오래된 가치처럼 들리지만, 그 시작은 늘 불완전한 자리에서, 작은 선택과 기억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보편성은 거대한 이론이나 고정된 가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떤 공간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시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조금씩 생성되는 힘이다. 궤리사가 걸어온 시간은 이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다. 동래의 작은 흔적, 공서린의 학문적 기반, 정조의 도시 구상, 철폐와 복원, 후손의 노력, 시민의 참여까지—이 공간을 지탱해 온 것은 화려한 담론이나 대단한 제도가 아니라 “이 장소를 잊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선택과 실천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말하는 보편성은 어떤 집단의 권위가 규정한 가치가 아니라 기억의 선택, 관계의 조정, 경험의 공유 속에서 서서히 형성되는 작고 지속적인 문화적 힘으로 보고자 한다. 오늘날 K문화의 확장은 이러한 보편성의 작동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엄숙함보다 유연한 태도, 폐쇄보다 열린 참여, 정답을 요구하기보다 다양한 해석을 허용하는 감수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든다.

궤리사의 변화 역시 이 감수성과 닮아 있다. 그렇다면 전통이 새로운 보편성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 궤리사가 보여준 흐름을 토대로, 다음 세 가지 실천 요소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기억의 개방이다. 전통은 시민이 해석할 때 살아날 수 있다. 전통은 반복한다고 자동으로 전승되지 않는다. 기억이 머무는 방식, 기억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질 때 전통은 비로소 다시 의미를 얻는다. 과거 궤리사의 기억은 유림의 손에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후대에는 후손들이 이를 복원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시민의 관여

가 늘면서 기억의 방식이 달라졌다. 전통의 기억이 특정 집단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열릴 때, 그 기억은 단한 기록에서 살아 있는 경험으로 전환된다. 이 열린 구조가 보편성의 가장 기초적인 조건이다. “기억은 누가 선택하는가?”라는 질문은 결국 전통의 주체를 누 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궤리사의 최근 변화는 전통의 기억을 ‘유지하는 사람들’에서 ‘경험하는 사람들’로 넓히는 과정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문화적 전환점이 되는 것이다.

둘째, 관계의 변화이다. 전통은 새로운 만남 속에서 다시 구성된다고 하겠다. 궤리사는 오늘 더 많은 시민이 드나드는 공간이 되었다. 이는 단순히 출입의 범위가 넓어졌다 는 의미가 아니라, 전통을 둘러싼 관계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전통은 특정 집단이 독점할 때 오히려 빠르게 고립된다. 그러나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함께 참여할 때 전통은 새롭게 읽히고, 다시 구성될 수 있다. 궤리사에는 지역 주민, 다문화 가정, 디아스포라, 화교 사회, 유학생 등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행단(杏壇)은 이러한 관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 공자가 은행 나무 아래에서 제자를 가르쳤다는 고사를 바탕으로 조성된 이 공간은 청소년·시민 교육, 예절 강좌, 작은 체험 활동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세웠다.¹⁶⁾ 전통이 ‘독점된 의례’에서 ‘공유되는 배움’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전통은 이렇게 새로운 만남을 통해 넓 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연결되며 다시 구성된다. 이 과정은 보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이다.

셋째, 경험의 공유이다. 전통은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될 때 힘을 갖는다. 전통은 기록으로만 존재할 때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경험으로 축적되면 그 문화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궤리사가 운영하는 작은 프로그램들이 전통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경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이 경험의 층이 쌓일 때 전통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감수성 안에서 다시 읽히게 된다. 이는 보편성이 형성되는 실제적 과정이기도 하다.

넷째, 보편성의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궤리사의 조용한 변화가 과연 보편성으로 확장 될 수 있는가. 보편성은 어떤 문화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연 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기억·관계·경험의 축적에서 생기는 문화적 힘이라고 본다. 궤리사가 전승에서 공유로, 전통의 보존에서 시민의 경험으로 이동하는 과정은 보편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작은 규모이지만 분명하게 보여준다. 유림이 지키고 후손이 복원하고 시민이 공유하는 이 삼중적 구조는 전통이 살아남는 조건이 달라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K문화가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는 방식과도 닮아 있다.

16) 초창기 1996년 세워진 상징적 교육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개선된 환경 제공을 위해 시민강의실을 새롭게 세워 좌식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넓게 분리된 공간은 시민들의 참여를 가능케 했고 실내로 옮겨온 교실로 볼 수 있다.

전통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기억과 참여, 그리고 경험 속에서 다시 선택되고 다시 구성될 때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을 갖는다. 웰리사의 변화는 이 작은 힘이 어떻게 보편성을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다.

에릭 홉스봄이 말했듯 전통과 보편성은 자연스럽게 쌓인 시간의 결과라기보다 종종 ‘만들어진 것’이며 현재의 필요와 목적 속에서 새롭게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은 과거에서 유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현재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¹⁷⁾는 점에서 그렇다. 아스만의 문화의 기억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보편성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문화기억은 개인의 기억이 사라진 이후에도 사회가 선택적으로 보존하고 재구성하는 장기 기억의 체계라는 것이다. 이 기억은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가 무엇을 보존할지 선택할 때마다 새로운 의미로 갱신될 수 있다고 했다.”¹⁸⁾

V. 보편성의 재정의와 K문화 시대의 새로운 감수성

보편성은 중심이 선언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권력과 제도가 전통을 세우고자 해도 그것이 타자의 삶 속에서 의미를 얻지 못하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반대로 주변의 작은 실천과 공감이 누적될 때 전통은 살아남고 확장된다. 웰리사가 여러 시대적 굴곡 속에서도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공자가 말한 ‘인(仁)’은 존중, 배려, 겸손을 의미한다. 거창한 도덕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윤리다. 그래서 이 공간은 어느 시대든 누군가에게 “이건 내 이야기다”라고 느껴지는 지점을 제공해 왔다. 세대 간에 이어진 이 감정적 공감은 웰리사의 지속성을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힘이었다. 웰리사의 역사에서 보듯, 전통은 특정 집단의 독점적 유산이 아니다. 유림의 해석, 후손의 복원, 시민의 참여가 이어 붙인 기억의 층위이며, 타자의 이해와 참여를 허용할 때 하나의 공동 기억으로 재구성되는 것이다.

오늘날 K문화가 세계에서 공감을 얻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힘은 거대한 담론에서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개인의 경험, 가족의 이야기, 일상의 정서와 같은 주변적 요소들이 타자의 마음속에서 “내 이야기 같다”는 감각을 만들어내면서 확장되었다. 그래서 웰리사는 K문화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장소다. 권력에 의해 형성된 전통으로 출발했지만, 그 전통이 살아남은 방식은 타자의 수용, 세대 간의 공감, 일상의 실천이라는 매우 소박한 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17) 에릭 홉스봄, 앞의 책, 10~30쪽 참조.

18) 얀 아스만, 앞의 책,

이 점에서 궐리사는 한국 문화의 보편성을 조용히 지탱해 온 공간이다. 크고 화려한 담론이 아니라 작은 배움과 실천이 전통을 이어 왔으며, 그 느린 지속성은 보편성이 형성되는 실제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보편성은 중심의 논리나 제도적 확장이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실천과 기억이 축적되고, 그것이 타자에게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때 문화적 힘인 복원력으로 재탄생된다.

궐리사에 대한 필자의 관찰과 참여는 이 공간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 경험이었다.

토론문

이유정(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먼저 궐리사라는 구체적 장소를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현재적 의미를 탐색한 발표자 한남수 선생님의 섬세한 연구와 숙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공소의 동래(1349년)에서 정조의 궐리사 창건(1792년), 서원철폐령의 위기,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시민 참여에 이르는 긴 역사적 여정을 양 아스만이 말하는 '문화 기억의 축적이자 장'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한 시도는 매우 의미 있는 학술적 성취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의 발표는 단순히 지역사 연구를 넘어, 전통이 어떻게 시대의 요구 속에서 재해석되고 시민의 문화 기억으로 자리매김하는지를 논증해 내는 탁월한 사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발표문을 읽으며 몇 가지 떠오른 질문을 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1. ‘전승’과 ‘공유’의 관계 : 단계인가? 공존인가?

선생님께서는 궐리사의 변화를 “전승에서 공유로의 이동”으로 개념화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설득력 있는 프레임이며, 유림→후손→시민으로 이어지는 주체의 확장을 명료하게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며 후손들의 행위를 다시 생각해 보았는데, 이들이 행단을 설립하고 시민을 석전제에 초청하고, 한문 강독이 아닌 논어 교실을 여는 행위는 단순히 후손의 '복원'을 '공유'하는 것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는 유교 전통을 "권력과 질서의 이념적 언어"(2쪽)에서 "시민의 경험 속에서 새롭게 의미화되는 기억의 체계"(2쪽)로 재맥락화하는 매우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문화연구의 용어를 빌리자면, 이것은 일종의 '전유(appropriation)'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전승에서 공유로’의 흐름에 ‘전유’라는 중간 단계를 명시적으로 추가하시면 어떨까요? 즉 ‘전승–전유–공유’의 삼단계로 이해하면 어떨지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유림이 의례의 형식을 ‘전승’하고, 후손들이 그것을 현재적 맥락에서 ‘전유’하며, 시민들이 그 의미를 함께 ‘공유’하는 구조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후손들의 역할이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수동적 매개자가 아니라, 전통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적극적 행위자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 과정이 '이동'이라기보다는 각 '층위의 중첩' 혹은 ‘전승–복원’와 ‘전유–공유’의 ‘장(場)’들이 이합집산하며 공존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

롭게 상상해 봅니다.

발표문 8쪽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현재 궐리사는 성균관유도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정확한 의례를 이어가기 위해 꾸준히 교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전승'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후손들은 어린이 예절 교육, 논어 강독, 행단 운영 등으로 공유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승과 공유는 시간적으로 교체된 것이 아니라, 공간적으로 공존하며 상호작용하는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승이 없으면 공유할 내용 자체가 사라지고, 공유가 없으면 전승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습니다. 이 둘의 긴장과 협력 관계를 좀 더 입체적으로 드러내신다면, 궐리사가 오늘날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더욱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관찰하신 현장에서 전승의 '엄격함'과 공유의 '유연함' 사이에 어떤 긴장이나 협상의 순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석전제의 격식을 지키면서도 시민을 초청해 참관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정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주신다면 논지가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2. 시민 참여와 체험의 구체적 양상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시민이 참여하고 경험하며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1쪽)의 변화는 이 연구의 핵심 주장입니다. 실제로 행단(杏壇) 설립, 석전제 시민 초청, 논어 교실, 전시실 운영(2쪽)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말씀하셨고, 10쪽에서는 다문화 가정, 학교, 유학생 등 다양한 배경의 시민 참여를 언급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시민들이 궐리사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사례나 증언이 추가된다면, '공유'의 의미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실천으로 읽힐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의 발표는 궐리사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전승되며', '공유되는지'를 역사적·이론적으로 고민하고 추적한 훌륭한 연구입니다. 특히 정조의 정치적 구상, 유림의 복원 노력, 그리고 오늘날 시민의 참여에 이르는 다층적 시간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서 설명해 낸 점은 감동적입니다.

앞서 제기한 질문들—전승과 공유, 전유의 관계, 시민 경험의 구체성—은 발표의 결함이 아니라, 이 훌륭한 연구가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제언입니다. 선생님의 지속적인 현장 관찰과 이론적 성찰이 더해진다면, 이 연구는 한국 문화유산 연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귀중한 발표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K의 해체와 재구성 : 뉴진스 현상과 케이팝 정체성의 전환¹⁾

서영호(경상국립대)

국문초록

본 연구는 뉴진스 사례를 통해 케이팝에서의 'K' 정체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재배치되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K'는 초기 한류의 국가적 기원 표상에서 출발해, 2010년대에는 기획·트레이닝·유통 등 제작 시스템을 지시하는 산업적 프로토콜로, 최근에는 감각·정동 중심의 글로벌 수용 양식으로 이동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변화는 'K'의 의미가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점유되는 '부동기표'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뉴진스는 서사·고에너지, 과잉미학 중심의 기준 케이팝 문법을 약화하고, '회상적 감수성'과 '감각적 체류 경험'을 전면화함으로써 케이팝의 보편적 소구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어, 제작 체계, 유통 등에서는 여전히 케이팝 특유의 구조적 기반을 유지한다. 이 연구는 이를 통해 케이팝에서 'K'의 의미가 형식·감각·구조의 상호작용 속에서 재구성되는 다층적 정체성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키워드: 한류, 케이콘텐츠, 케이팝, 뉴진스, 정체성

1) 이 논문은 저자가 앞서 발표한 비평문(안승범, 서영호 외. "케이팝과 팝 사이, 뉴진스가 세상을 끌어안는 법." 2024 K-콘텐츠: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77–96쪽).을 수정, 보완하여 학술논문으로 확장한 것이다.

I. 서론

글로벌 대중문화 환경에서 한류, K-콘텐츠를 상징하는 K 기표의 의미는 변화하고 있다. 이 표지는 한국이라는 국가적 기원은 물론, 문화적 특수성, 산업 체계, 그리고 글로벌 감각의 전유 방식 서로 다른 층위에서 그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의 K-콘텐츠는 한국성의 약화와 글로벌 보편 감각의 확장, 또는 새로운 감각의 형성이라는 복합적인 국면을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K의 의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연구는 K의 정체성 탐구와 조망을 위해 케이팝의 사례를 주목한다. 케이팝은 그 제작, 유통, 소비 양식이 다른 한류 장르보다 한국만의 고유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케이팝은 K라는 기표가 표상하는 의미가 어떻게 이동하고 재배치되고 있는가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가장 적합한 장이라 할 수 있다.

케이팝 정체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들 역시 한국적 특수성의 약화와 여전히 독자적 장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러한 긴장 속에서 케이팝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사례는 상술한 케이팝 정체성 전환을 포착할 수 있는 가시적 사례로 주목받는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뉴진스 사례를 통해 케이팝에서 K의 의미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그간의 'K 담론'의 전개와 그 의미의 이동을 검토한다. 또 부동기표 개념을 통해 K의 정체성 이해를 위한 전제적 관점을 제시하고, 이어 회상적 감각이 부상한 현대의 문화, 사회적 배경을 통해 이후 다룰 뉴진스의 감각 구성 방식과 연결을 도모한다.

결국 이 연구는 케이팝 정체성이 단일한 국가, 문화적 기원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 감각, 구조의 상호작용 가운데 재배열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뉴진스 현상은 이러한 변화가 기존 K 정체성과의 단절이라기보다 부동기표로서 K의 의미가 재배치되는 것으로 이해하며, 이 논의는 케이팝에서의 K의 이러한 의미 변화가 K-콘텐츠 전반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리라는 전제 위에 있다.

II. 'K' 담론의 전개와 개념적 배경

2.1 K 담론의 변천

케이팝을 통해 사용되기 시작하여 정착된 K라는 지표는 한류의 전개 과정을 통해 그 것이 지시하는 바가 유동적으로 변해왔다. 그것이 품고 있는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

었으며 당대의 문화산업, 정책, 글로벌 유통 맥락에 따라 의미가 지속적으로 이동해 온 담론적 범주의 기호라 할 수 있다. 초창기에 그것은 주로 국가적 브랜드 전략과 맞물린 문화 외교적 상징 기호였다. 이 시기에는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주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해외 소비자에게 소구할 수 있다는 점을 통해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산업 수출 확장으로 연결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²⁾ 그러므로 K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기원한 콘텐츠’라는 지역적, 공간적 근원성을 강조하는 표지였으며, 그 정체성은 곧 주로 국가적 소속감에 근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2010년대를 지나면서, 특히 케이팝의 경우 자체 제작 시스템과 글로벌 유통 전략을 고도화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그 고유한 과정이 콘텐츠에 고유성을 부여하였다. 그러면서 케이팝에서 K는 연습생 제도, 고도의 퍼포먼스, 멀티 프로듀싱, 능동적 팬덤과 플랫폼 기반 생태계 등을 아우르는 생산 메카니즘 자체를 지시하는 의미로 변모하였다.³⁾ 이러한 전환은 K를 더이상 민족적, 지역적 본질이나 그 전통의 재현으로 설명하지 않고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관여하는 산업적 프로토콜로 이해하도록 만들었다. 즉 K는 한국이라는 특정 국가의 공간적 기원이 아닌 특정 기획·제작·유통을 포함하는 일종의 전략적 조합의 체계, 산업적 알고리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2020년대에 들어서 문화산업 생태계가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케이팝의 수용은 한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보다 콘텐츠가 구성하는 정동·미학·관계 감각⁴⁾ 위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화되었다.⁵⁾ 케이팝 팬덤은 음악, 뮤직비디오, 퍼포먼스의 총체적 경험을

2) Jin, Dal. *New Korean Wave: Transnational cultural power in the age of social medi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6.

Shim, Doobo.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Media, culture & society* 28.1 (2006): 25–44.

Kim, Youna, ed. *The Korean wave: Korean media go global*. Routledge, 2013.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와 문화정책: 한류 20년 회고와 전망.”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3) Oh, Ingyu, and Hyo-Jung Lee. "K-pop in Korea: How the pop music industry is changing a post-developmental society." *Cross-currents: 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 review* 3.1 (2014): 72–93.

Kim, Suk-Young. *K-pop live: Fans, idols, and multimedia perform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

Choi, JungBong, and Roald Maliangkay, eds. *K-pop: The international rise of the Korean music industry*. Vol. 15. London: Routledge, 2014.

4) 아티스트와 팬, 팬과 팬, 콘텐츠와 팬 등 콘텐츠와 팬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경험을 느끼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5) Park, Seoyeon, Hyejin Jo, and Taeyoung Kim. "Platformization in local cultural production: Korean platform companies and the K-pop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7 (2023): 22. Jin, Dal Yong, Kyong Yoon, and Benjamin Han. "Platformization of the Korean Wave: a critical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and Practice* 9.4 (2023): 408–427.

Kim, Suk-Young. *K-pop live: Fans, idols, and multimedia perform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

통해 감정적 공명을 우선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K는 그만의 정서적 감각을 매개하는 작동 방식으로 인지된다. 이제 K는 특정 문화 유래의 속성을 전제하는 범주보다는 글로벌 감각 차원에서 작동하는 미감의 수사로 이해되며 그 미감 역시 케이팝만의 고유성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K라는 수식어는 유효하다. 그리고 뉴진스 사례를 이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낸다.

2.2 부동표지로서의 K

이처럼 K는 한류와 K콘텐츠, 케이팝을 표상하는 기호로서 그 의미는 유동적이었음에도 그 중심적 위치를 점유해 온 기호이다. 이러한 점에서 K는 부동기표(floating signifier)로 이해할 수 있다. 부동기표 개념은 특정 실체를 지시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관련 주체들이 자신의 목적에 따라 의미를 부여하고 중심적 점유를 시도하는 기호적 자리를 의미한다.⁶⁾ 부동표지로서 특정 기호는 고정된 의미를 담지 않고 의미투쟁의 역학 맥락 속에서 잠정적으로만 안정적으로 통용된다. 따라서 부동기표로서 ‘K’ 역시 무언가의 본질을 담는 기표가 아니라 의미의 점유 경쟁이 발생하는 중심 노드-교점으로 의미 분배가 이루어지는 응축점이라 할 수 있다. 부동기표가 갖는 이러한 비결정성과 ‘비어 있음-공허함’이 K가 오랜 시간 동안 확장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중심 기표로 기능할 수 있었던 담론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앞서 다룬 K 담론의 변천은 ‘다음’이 ‘이전’을 대체한 선형적 변화라기보다 동일한 기표 K를 위시한 서로 다른 주체들이 의미의 중심을 점유하려는 헤게모니 경쟁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국가 브랜드 전략으로서의 K는 정책적 담론, 특정 생산체계로서의 K는 산업 담론, 감정적 연대와 감각의 표지로서의 K는 팬덤이나 비평 담론이 각각 우월적 지위를 점한 결과인 것이다. 각각의 담론은 K를 서로 다른 방향에서 당기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완전한 의미 독점을 확보하지 못하며 K의 의미는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미봉합의 상태로 중심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부동기표로서 K는 따라서 동시대 문화정체성의 본질이나 기원 등에 결정되지 않고 관계·수용·배치의 효과로 구성되는 방식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글로벌 플랫폼 환경에서 문화적 정체성은 생산·유통·수용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관계적 결과에 좌우되며, 이러한 양상은 정체성을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주체들이 상호 기대와 감각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한다. 그러므로 K는 특정 문

6)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Towards a Radical Democratic Politics*. Verso, 1985.

화의 실체를 지시하는 수사가 아니라 의미가 계속해서 재구성되는 구조와 조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K를 부동기표로 이해하는 관점은 ‘K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에서, 그 의미가 어떠한 맥락 속에서 점유되고 변화하는가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시킨다는 점에서 이 연구를 위한 개념적 전제 관점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는 뉴진스 사례에서 정동, 감각적 층위의 부상이 K 정체성의 새로운 본질의 출현이 아니라 K라는 기표에 대한 의미가 재구성되는 국면임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적 관점을 제공한다.

2.3 회상적 감수성의 부상

이 연구에서는 뉴진스 현상에서 나타나는 회상적 감수성을 다룬다. 다만 이는 케이팝 정체성의 향후 경향성의 일반화를 암시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뉴진스 사례가 보여주는 감각 구성 방식과 그것의 부상의 해석을 위해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분석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이 회상적 감수성에 관하여서는 현재의 정동 구조가 과거의 시간성을 호출하는 방식에 주목하고, 그 호출이 과거의 복원이나 재현이 아니라 감정적 조율의 작동에 기인한 것임을 논할 것이다.

바우만의 ‘레트로토피아’ 개념⁷⁾은 현대의 과거 회귀적 경향성을 진단한다. 즉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약화한 시대적 상황에서, 심적 안정과 정체성의 근원을 과거적 이미지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짚어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과거는 현재의 불확실성을 완충해주는 감정적 자원으로 동원된다. 따라서 현대의 과거 회귀성은 과거 자체에 대한 향수라기보다 현재의 정서를 통제, 조율하기 위한 호출에 방점이 있다.

한편 흉스봄은 ‘발명된 전통’ 개념⁸⁾을 통해 여러 사회의 전통이 사실 집단의 결속 유지나 통제 등 정치적 제도적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논한다. 즉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주변적이었던 관습이 마치 ‘과거로부터 이어져내려온 것처럼’ 정당화되어 포장된 것이다. 즉 발명된 전통 역시 현재의 사회적 요구를 위해 과거가 제도화되는 구조를 설명한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현대 대중문화콘텐츠의 감정적, 미학적 층위에서 작동하는 과거 호출의 양상의 본질을 발명된 전통 개념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즉 오늘날 많은 과거 회귀적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과거는 실재했던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마치 존재했었던 것 같은 유사 과거로서 이른바 ‘발명된 과거’라 부를 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감정 형성을 위한 자원으로 ‘창의적으로 호출’되고 있는 것으로

7) Bauman, Zygmunt. *Retrotopia*. Polity Press, 2017

8)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The invention of tradition." (1983).

로 뉴진스 콘텐츠는 이러한 경향성이 케이팝 산업을 통해 극대화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요컨대 이른바 ‘발명된 과거’에 의한 회상적 감수성의 부상은 ‘탈-K’ 감각의 표면화가 어떠한 정동적 조건에서 가능해졌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 개념이다.

III. 뉴진스의 K와 탈-K

3.1 케이팝 문법의 해체

뉴진스는 그간 케이팝을 규정해온 중심 문법을 일부 유지하면서도 그 작동방식에서의 우선순위와 감각적 결을 전환시키고 있다. 기존의 케이팝이 세계관, 서사, 날선 퍼포먼스, 극대화된 감정 표현, 다양한 장르 혼합의 의한 역동적 전개 등 맥시멀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파잉의 미학’에 정체성의 토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뉴진스는 이러한 전통적 주력 요소들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중에서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표상하는 장치들을 한 발짝 뒤로 물리고 대신 감각적 체류, 정서의 친밀함, 일상적 리듬의 호흡 등을 중심에 배치한다. 이러한 전략은 정체성을 힘들여 ‘설명’하거나 ‘증명’하기보다는 느껴지도록 구성하는 방식으로의 전화라 할 수 있다.

특히 뉴진스는 멤버들의 나이와 인생 단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하이틴 정서를 감추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전략을 취한다. 자신들의 실재와 더 잘 어울리는 청량함과 미숙함을 미학적 핵심으로 암시하는 그들의 전략은 성적 상징이나 성장 서사 등을 통해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성숙시켜 왔던 기존 케이팝의 관행을 완곡하게 회피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의 미학은 특정 메시지를 힘주어 선동하거나 자신들의 존재감을 강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툴고 여리고 방황하는 또래의 일상 정서를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구성을 취함으로서 확보된다.

음악적으로도 뉴진스는 케이팝이 그간 주력해 온 장르 파잉의 하이브리드 작법을 탈피해 간결한 구조, 뚜렷한 절정의 회피, 축소된 서사, 제한된 악기 편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사운드 미감을 구축한다. 《Get Up》 수록곡 대다수는 2분대 중후반의 짧은 구성 속에 순간적 감각 자장 형성을 위한 음악적 이벤트에 가깝다. 이때 음악 역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선언하기보다, 정서적 체류 공간을 만들어내는 미디어로 기능한다. 노래는 메시지나 이념의 전달보다 감정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주력한다. 이는 뉴진스의 음악이 케이팝 울타리 내부의 또 다른 파생물로 이해되는 것을 넘어, 글로벌 팝 감각의 새로운 한 가능성을 선취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읽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뉴진스 콘텐츠에서 보이는 변화는 케이팝 전통 문법의 완전한 해체나 대체라기보다, 그 문법의 중심 작동 축이 ‘자기-정체성의 휘두름’에서 ‘감각적 체류 공간’으로 이행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케이팝의 전통적 규범 형식이 내포하고 있었으나 드러나지 않았던 또 다른 가능성을 이끌어낸 전환적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3.2 탈-K 감각의 표면화

뉴진스가 비-케이팝적 요소들을 중심 소구 전략으로 내세움으로써 보편의 팝으로서 수용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양상은 K 의미 재구성의 주요 국면이다. 그리고 그중 회상적 감수성의 전면화는 현대 사회가 대중음악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보편적 요구-레트로토 퍼아-의 결과인 것이다. 뉴진스 콘텐츠에서 보이는 소위 발명된 과거라 할 '회상적 정동구조물'은 현재의 요구에 따라 선별되고 재배치된 과거적 분위기를 통해 형성된다. 이 회상적 감수성은 사운드, 미학, 영상, 스타일링과 퍼포먼스 등 뉴진스 콘텐츠 전반을 통해 구축된다.

<Ditto>, <Attention>, <ASAP>, <ETA>, <Cookie>, <Super Shy>, <Super Natural> 등 주요 곡들의 사운드는 주로 90년대와 2000년대 장르와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고 있다. 그것은 90년대 슬로우 캠 R&B나 뉴 잭 스윙부터 볼티모어 클럽, UK 캐러지, 저지 클럽, 90년대 드럼 앤 베이스 등에 이르며 어떤 곡들은 이 중 몇 가지를 혼용하기도 한다.

각종 시각 정보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뮤직비디오에서 이러한 회상적 감수성은 더 구체적 세계로 구현된다. <디토> 뮤직비디오에서 옛 교정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교복차림의 고등학생 뉴진스, 그리고 또 다른 등장인물 '반희수'와 그녀의 6mm 카메라는 Y2K 시절 어딘가 즈음로 착각할 만한 세계를 구축한다. <뉴진스> 뮤직비디오 역시 Y2K 시절 TV 애니메이션과 초기 콘솔 게임의 저해상도 그래픽 질감 등을 활용한 화면 구성으로 '그럴듯한 과거' 감각을 선택적으로 구현한다. 여기서 멤버들의 육체는 애니메이션적 캐릭터와 실재를 교차하며 현실과 가상, 과거와 현재를 오간다. <Super Natural>이나 <Cookie>, <OMG> 등에서 음악에 맞물린 안무와 과거 아이돌 SES, 평클이 겹쳐보이는 의상 등은 90년대 어딘가를 흐릿하게 상기시킨다.

또 뉴진스의 맥도날드 광고는 외부의 시선 역시 뉴진스의 핵심 감각이 무엇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할 수 있다. 광고는 뉴진스를 "한국의 아이돌"이 아니라 "지금-여기의 감각을 알고 있는 존재"로 묘사하며 '케이팝 스타'보다 '보편 감각의 매개자'로 위치시키고 있다. 이는 탈-K 감각이 실제 시장에서 통용 가능한 상징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일면이다.

요컨대 뉴진스는 이러한 방식으로 한국이라는 특정 문화, 민족을 지시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이해 가능한 '시대의 감각'을 구성한다. 뉴진스 콘텐츠는 특정한 시대를 지시하기보다 누구나 공유 가능한 비-특정적 혹은 '가능한 과거'의 감각을 구성하며, 이 회

상적 감수성을 통해 기존 케이팝의 소구 대상을 넘어 보편적 팝 시장으로 확장함으로써 이것이 케이팝 정체성 구성의 새로운 감각적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3 잔존하는 K 구조

비록 뉴진스의 회상적 감수성이 케이팝 정체성의 구성 원리를 감각적 층위로 전이시켰지만 이것이 곧바로 탈-K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K라는 범주는 소멸하기보다 그 의미가 다른 층위에서 재배치되는 것이다. 즉, 이제는 K가 서사적 기원이나 '한국성'의 직접적 표상으로 작동하진 않지만 여전히 그것은 제작 시스템, 언어, 유통 구조, 수용 인식 등의 차원에서 핵심적 기능을 유지한다.

첫째, 제작 체계 측면에서 뉴진스는 여전히 케이팝적 존재이다. 멤버의 선발과 조직, 트레이닝, 음원·안무·콘셉트의 전략적 통합 설계, 콘텐츠의 플랫폼 유통 양상 등은 케이팝 산업이 2010년대 이후 나름의 노하우로 정립한 고도의 생산 모델에 기반한다. 이 제작 기획·제작 시스템은 아이돌 그룹을 개별 창작자의 관점으로 다루기보다 감각·공연·시각·서사 등이 통합된 '복합적 연행자'로 형성하는 구조를 갖는다. 뉴진스는 자연스러움의 미학을 중심에 둠으로써 기존 케이팝과 차별화를 꾀하지만 그 자연스러움 역시 연출되고 조율된 제작 체계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케이팝의 기획전략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뉴진스는 케이팝의 형식적 기반 위에서 표면 감각의 재배치를 통해 변위를 추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어는 언어적 매개로서 여전히 K를 특정 국적성에 귀속시키는 강력한 요소로 작동한다. 뉴진의 음악이 케이팝만의 특정한 정체성, 음악에서의 한국성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한국어로 된 가사는 음악이 어떤 음악적 맥락에서 생산되었는가를 최소한의 표식으로 전달한다. 즉 탈-K는 언어적 탈-한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뉴진스의 경우처럼 한국어 그대로의 가사가 언어장벽을 넘어 수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는 케이팝이 글로벌 시장에서 '번역되지 않고도 소비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케이팝 콘텐츠가 수용자에게 문화적 동질성을 강요하거나 그것에 기대어 호소하지 않더라도 문화적 차이를 유지하면서 수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글로벌 유통과 수용의 차원에서 K는 하나의 범주 혹은 양식으로 지속된다. 뉴진스의 등장으로 케이팝은 한국적 특수성의 수출품으로만 소비되기보다 세계 대중음악 시장의 한 작동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변화는 케이팝이 문화적 기원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케이팝이라는 범주가 곧 일종의 '음악적 유통 포맷'으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뜻한다. 롤라팔루자 등 해외 대형 페스티벌에서의 공연 성황을 포함한 해외 반응⁹⁾은 뉴진스가 단순히 '케이팝 가수'가 아니라 동시대

9) <https://www.popmatters.com/k-pop-2025-key-year>

팝의 경향적 감각을 구현하는 사례로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뉴진스는 수용자에게 개별 아티스트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전히 K라는 장르적 범주 아래에서 인식된다. 하지만 이때 그 정체성은 한국성과는 다소 무관한 것이다. 이미 이전의 케이팝 현상을 통해 서서히 가시화되어 오던 이러한 현상은 상술한 뉴진스의 보편 감각 확대와 더불어 더욱 명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은 정체성의 소멸이 아니라, 인식의 충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K는 이제 그 내용보다 ‘범주적 인지 장치’로 작동한다. 소비자는 뉴진스에 공명하기 위해 ‘한국성’을 읽어낼 필요는 없지만, 여전히 뉴진스를 케이팝이라는 장르적 회로 속에서 수용한다.

IV. 결론

- 뉴진스 사례에서 K의 형식적 전환, 감각적 전환, 구조적 전환
- K의 다층적 정체성: 공간적 K, 시스템적 K, 보편적 정동으로서의 K
- 작동 방식으로서의 K: 시스템 중심의 지속성 + 감각-정동 중심의 보편성

참고문헌

- 서영호. “케이팝(K-Pop) 정체성 담론의 비판적 검토와 과제.” 문화영토연구, vol. 2, no. 2, 2021, pp. 39–61.
- 안승범, 서영호 외. “케이팝과 팝 사이, 뉴진스가 세상을 끌어안는 법.” 2024 K-콘텐츠: 한류를 읽는 안과 밖의 시선,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4, pp. 77–96.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와 문화정책: 한류 20년 회고와 전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8.
- Bauman, Zygmunt. *Retrotopia*. Polity Press, 2017.
- Hobsbawm, Eric, and Terence Ranger, editors.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Jin, Dal Yong. *New Korean Wave: Transnational Cultural Power in the Age of Social Medi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2016.
- Jin, Dal Yong, Kyong Yoon, and Benjamin Han. “Platformization of the Korean Wave: A Critical Perspective.” *Communication Research and Practice*, vol. 9, no. 4, 2023, pp. 408–427.
- Kim, Suk-Young. *K-pop Live: Fans, Idols, and Multimedia Performance*. Stanford University Press, 2020.
- Kim, Youna, editor. *The Korean Wave: Korean Media Go Global*. Routledge, 2013.
- Lie, John. *K-Pop: Popular Music, Cultural Amnesia, and Economic Innov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5.
- Oh, Ingyu, and Hyo-Jung Lee. “K-pop in Korea: How the Pop Music Industry Is Changing a Post-Developmental Society.” *Cross-Currents*, vol. 3, no. 1, 2014, pp. 72–93.
- Park, Seoyeon, Hyejin Jo, and Taeyoung Kim. “Platformization in Local Cultural Production: Korean Platform Companies and the K-pop Industry.”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vol. 17, 2023, pp. 22–43.
- Shim, Doobo. “Hybridity and the Rise of Korean Popular Culture in Asia.” *Media, Culture & Society*, vol. 28, no. 1, 2006, pp. 25–44.
- “K-pop 2025: The Key Year.” PopMatters, <https://www.popmatters.com/k-pop-2025-key-year>

<ABSTRACT>

“The Disassembly and Reconfiguration of ‘K’: NewJeans and the Shifting Identity of K-pop”

Suh, Young-ho

This study analyzes how the identity of “K” in K-pop is being reorganized through the case of NewJeans. The signifier “K,” which initially indicated a national origin in the early stages of the Korean Wave, evolved in the 2010s into an industrial protocol referring to planning, training, and distribution systems. More recently, it has shifted toward a global mode of reception centered on sensibility and affect. Such semantic transformations suggest the need to understand “K” not as a fixed essence but as a floating signifier whose meaning is contested and occupied by diverse actors. NewJeans weaken the narrative- and maximalism-driven conventions of traditional K-pop by foregrounding retrospective sensibility and affective modes of immersion, thereby presenting a new horizon of global appeal. At the same time, they continue to rely on K-pop’s structural foundations—language, production systems, and distribution formats. Through this dynamic, the study reveals that the meaning of “K” in K-pop is reconstructed as a multilayered identity shaped by the interaction of form, affect, and structure.

Keywords: Korean Wave, K-contents, K-pop, NewJeans, identity

토론문

이상유(고려대학교)

발표자의 연구는 케이팝 정체성과 관련한 최근 논의의 복잡한 흐름 가운데 뉴진스 사례를 통해 ‘K’의 의미 이동을 읽어내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논문은 “공간적·시스템적·보편 정동” 층위로 나누어 바라볼 수 있는 ‘K’의 의미 변화를, 뉴진스 사례를 통해 ‘형식적 전환, 감각적 중심 이동, 구조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특히 ‘작동 방식으로서의 K’라는 관점 제시는 기존의 ‘K 정체성’ 담론들을 한 데 담아내면서도 현재와 이후의 의미 해석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응 개념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드립으로써 이 연구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구하고, K의 미래 전망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을 함께 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뉴진스는 이 연구에서 말한 케이의 감각적 이동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것은 맞지만 케이팝 전체를 대표한다고는 보기 힘듭니다. 케이팝 내부에서도 각 가수마다 퍼포먼스, 서사, 비주얼, 메시지 등 중점 비중이 다양하며 이는 다시 말해 케이팝 내부에서도 가수별로 상황의 이질성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케이팝 내부의 이러한 다양성 속에서 뉴진스를 케이 형질 변화의 대표 사례로 다루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조금 더 부연 부탁드립니다.

둘째, 발표자께서는 케이의 의미 변동의 핵심 중 하나를 ‘자기-정체성의 휘두름’에서 ‘감각적 체류 공간’으로 이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각적 체류 공간’이라는 표현이 다소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각적 체류 공간으로서의 케이팝’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연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 연구는 이른바 ‘회상적 감수성의 부상’을 탈-케이 감각의 표면화라는 관점에서 하나의 사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만연화한 복고문화의 경향 속에서, 다른 적지 않은 케이팝 사례를 통해서도 복고 컨셉은 종종 발견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발표자께서는 이를 단순한 특수 사례 양상으로만 보시는지, 아니면 하나의 케이팝 경향으로서의 판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K-유니버스의 구축과 K-문화영토의 확장¹⁾

： 고전서사를 모태로 현대서사·K-팝으로 심화하고
한류 확산 경로를 따라 타민족의 서사들로 확장하는

임형택²⁾

국문초록

날로 글로벌 문화 영향력이 강화·확장 일로에 있는 K-컬처의 다음 단계로 'K-유니버스'를 상상하고 기획할 때다. 본 발표는 'K-유니버스'의 구축을 통해 '넥스트 K'를 기약하고 더불어 'K-문화영토'의 확장이 가능하리라는 비전과 그 실현 방안을 학계·문화계·산업계·관계 및 한국사회 일반의 공론 의제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음은 실현 방안의 주요 단계—내용이다.

첫째, 한국 고전서사를 모태로 삼고 한국 현대서사와 K-팝 아이돌의 유니버스 등 기타를 덧붙여 가는 방식—전략으로 구심(求心)을 구축한다. 둘째, 한류 확산 경로를 복기하며 역사적—문화적 친연성이 높은 인접 민족국가의 서사들을 덧붙여 가며 확장한다. 동북아에서 시작해 동남아 그리고 중동·남미 일부 등 한류 서사(K-무비/드라마)의 확장이 한류 음악(K-팝)과 함께 이뤄졌던 국가들—권역 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셋째, 한류에서 K-컬처로 진화했던 과정에서 확인됐던, 서양권의 한류 서사 수용 과정을 참조하면서 그 서양권 서사들을 새로운 단계의 포섭과 확장의 대상으로 삼는다.

상기(上記) K-유니버스 구축과 K-문화영토 확장의 비전과 방안은 내용(론)은 물론 방법(론)에서도 이중적인 '한국적(韓國的/韓國籍)'을 추구하는 일이다. '한국적(韓國的)' 세계관 아래 글로벌 문화와 시민을 포섭하는 것일뿐더러, 한국 문화산업의 노하우와 복합적 트랜스 미디어 스토리텔링으로 여타 국가들의 문화 산업을 '한국적(韓國籍)'으로 수렴하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제어: K-유니버스, K-문화영토, 넥스트 K, K-컬처, 고전서사, 현대서사, K-팝, 한국적(韓國的), 한국적(韓國籍)

1)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5A16077930).

2) 충남대학교, 331iht@gmail.com

I. 서사 장르 기반의 ‘K-유니버스’ 창출이 필요할 때

바야흐로 한국—문화의 특이점(singularity)이 도래한 듯하다. 고유하거나 특수했던 한국 인자(因子)들이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인 양태로 글로벌 곳곳에서 의미화·맥락화하는 양상이 흔히 목도되며, 현재(遍在)하는 한국—문화의 지배력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자들의 재의미화·재맥락화와 재배치 양상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는 까닭이다. 이를테면 미국과 일본의 자본·제작사가 K-팝 입문서 같은 콘텐츠를 내놓아 글로벌 팬덤을 열광·확장시키며 한국의 국위를 ‘선양’한다(<케이팝 데몬 헌터스>, 2025, 이하 ‘<케데헌>’). 한국이 주무대인 미국드라마(<엑스오, 키티(XO, Kitty)>, 2023·2025)에 글로벌 대중이 환호한다. 구글이 한국어와 한국 음식을 주제로(‘Korean Connection’)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스마트폰(Google Pixel 9) 론칭 행사(‘Translate and Taste’)를 연다(2025).¹⁾ 1998년도에는 택시 트렁크에서 자면서 24시간 체제로 일했던 프랑스 사회에서의 빈궁한 한국인의 이미지(<택시>, 1998)가 2011~2012년 이후에는 프랑스인—몸들의 지휘자로 빛나게 조정된다(루브르 박물관 앞 K-팝 플래시몹 사건과 <강남스타일> 파리 공연). 글로벌 대중이 중국 탕후루와 대만 버블티의 원산지를 모두 한국으로 인식한다. 저 <오징어 게임>(2021)에서마저도 ‘Red Light, Green Light’(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Sugar Honneycomb’(펩기)하면서 주저했으나 이제는 ‘뛰어’라고 ‘그대로’ 외친다(블랙핑크, <뛰어>, 2025).

한국—문화의 특이점을 운위하는 이유는 기존의 지배적이거나 주류인 문화들과는 차별된 발전 과정상의 특색과 그 힘의 발산 방식 때문이다. 근대 문화의 주류를 구성해왔던 서구와 이후 오늘날까지 가장 큰 지배력을 행사해왔던 미국의 문화들은 대개 정치력·군사력·경제력 따위로 일컬어지는, 소위 국력이라는 하드파워의 그림자에 힘입어 권력의 일종으로 획득된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 버금가는 위상과 힘을 지니게 된 한국—문화는 소프트파워—협의의 문화에서 광의의 문화까지—가 앞장서거나 때로는 하드파워 요소들과 병진하면서 그 독보적인 성격과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문화는 기존 주류 문화들이 지녔던 독선적·일방적·자기중심적 방식과는 대척적으로, 즉 협력적·상호적·융화적으로 그 영향력을 발산하게 되며 이는 진정한 소프트파워—문화의 작동 방식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한국—문화의 특별함은 충분히 강조돼야 하는바 ‘K-합성어’들과 ‘K-컬처’ 일반에도 두루 담지(擔持)될 필요가 있으며, K-컬처의 미래를 구상 및 기획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유니버스는 문화영토 확장의 유용한 방식이며,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이하 ‘TMS’)은 유니버스를 구축 및 확대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다만 TMS와 유니버스에

1) Extra Reporter, “Seoul food and smart tech as guests enjoy Google’s Korean Connection”, *Extra*, 2025.5.18(date of searching: 2025.11.11)

는 배타적 독점력이 작동할 수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인 마블 시네마 유니버스(이하 ‘MCU’)와 관련 콘텐츠들은 그 특징을 여실히 보여준다. 잘 될 때는 배타적 지위와 이득을 마냥 취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졌을지 모르지만 안 될 때는 고립된 채 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MCU의 부침(浮沈) 과정에서 드러났던 것이다.

또 하나의 대표적 성공 사례인 K-팝 아이돌 그룹들의 TMS를 통한 유니버스 창출은 이미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엑소(EXO)·방탄소년단(BTS)을 위시한 아이돌 그룹들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부분적인 서사들을 제공하며 이들의 방대한 팬덤은 적극적으로 부분적 서사들을 연결하여 유니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²⁾ 이러한 양상은 분명 K-컬처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음악—유행가는, 특히 아이돌 음악은 향유 연령층이 제한적이어서 보편적 확장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TMS와 유니버스 창출의 중심적 인자가 그 멤버들 자체이므로 지속성이 그 활동 기간과 함께 사실상 종료되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K-컬처 전체의 긍정적 영향력과 그 지속 및 미래를 생각할 때 서사 장르의 TMS를 통한 세계관 창출은 더 근본적이며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II. 한류의 확산과 K-컬처로의 진화

1. 동아시아와 기타 권역 일부(한류 1.0~2.0): K-서사와 K-팝의 병진

국가(지역)마다 그 기원과 경위가 다른 한류의 복잡한 역사를 간단히 서술기는 어려우나, 그 선두에 대중음악과 함께, 아니 그 이상으로 대중서사(드라마·영화 등)의 작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충분히 반추될 필요가 있다. 즉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로 확장하는데 있어서 첨병 역할을 하는 것은 늘 대중음악이었으나 그 확장이 견고한 뿌리로 심화하는 데 있어서는 대중서사의 보완 작용이 필히 요청됐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류 1.0~2.0³⁾ 시기에는 서사(드라마·영화)와 K-팝이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 수용되면서 권역 내 여러 국가에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었다. 대만에서의 <마지막 승

2) 조민선·정은혜, 「한국 아이돌 콘텐츠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연구—EXO와 BTS를 중심으로」, 『인문콘텐츠』 52, 인문콘텐츠학회, 2019; 박소영, 「아이돌의 트랜스미디어 콘텐츠에 나타난 스토리텔링 전략—아이돌 그룹 뉴이스트의 세계관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87,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최윤영, 「K-POP 아이돌 그룹의 트랜스미디어 스토리월드 확장 사례 연구: 리부트와 오마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1-4, 한국콘텐츠학회, 2021 등 참조.

3) 한류의 시기 구분은 관계 당국이나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2013)의 구분을 토대로 삼고 한국콘텐츠진흥원(2019), 정부(2020), 정종은(2023) 구분을 두루 참조했다.

부>(1994–1994), 중국에서의 <사랑이 뭐길래>(1991–1997), 일본에서의 <겨울연가>(2002–2003) 등이 1980년대 홍콩류와 1990년대 일본류의 유행을 지나서 동아시아에 한류를 몰고 온 시발점이었고 이후 <대장금>(2003–2005)을 위시해 줄줄이 이어진 콘텐츠들이 한류를 확립시키고 오늘날까지 지속—발전되도록 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K-팝에서도 역사화될 만한 뮤지션(팀)과 콘텐츠가 쏟아졌다. 물론, 보아, HOT, 동방신기 등과 그들의 노래들이 그러하다.

그러나 K-컬처(한류 3.0~)로의 진화에서는 그 지침과 인식이 일반화하기까지, 대중음악과 대중서사의 글로벌적인 수용에서 약 10년의 시차가 있었다. 먼저 K-팝이 오랜 두드림 끝에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 무대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 글로벌 대중음악의 주류 —특수에서 보편으로— 장르로 자리 잡았으며, 그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부터 K-서사가 주목받고 곧이어 글로벌 대중서사의 주류 장르로 등극했던 것이다.

2. 글로벌 전 권역(한류 3.0~): K-팝의 선도와 K-서사의 합류

한국 대중음악이 동아시아 이외 권역에서 수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대 초반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2011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합동 공연[에스엠 타운 라이브(SM Town Live)]을 상기할 수 있다. 이 공연 자체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었으나 더욱 세계인들의 눈길을 끌고 의미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건’이 공연장 외부에서 발생했다. 이 공연 표가 순식간에 매진되자 유럽의 K-팝 팬들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자발적으로 모여들어서 슈퍼주니어를 비롯한 K-팝의 퍼포먼스를 플래시몹으로 재현했고 이것이 다시 뉴스와 온라인 동영상으로 널리 회자되며 증폭됨으로써 더 큰 사건을 일으켰던 것이다.

또 그동안의 투여한 공력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미국시장에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2012년에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최고 순위 2위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은 ‘사건’을 회상할 수 있다. 더욱이 그 특유의 말춤 퍼포먼스는 군중뿐만이 아니라 유명인들도 굉장히 불러냈으나, 글로벌 방방곡곡에서 다양·다대하게 벌어진 강남 스타일의 플래시몹과 영상들 그리고 유튜브와 관련된 기록과 ‘사건’은 그 엄청났던 인기의 실증자료로서 여전히 기억되는 바다.⁴⁾

이렇게 글로벌 무대로의 물꼬가 트이고 난 후, 오늘날 K-팝 뮤지션들의 글로벌적인 인기와 활약상은 사건이 아닌 일상이 됐다. 과거 한국 가수들은 국내의 가요 순위 프로나 콘서트에 의지해 존재했다면, 오늘날의 K-팝 뮤지션들은 세계를 무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대륙이나 국가를 순회하며 대형 공연을 벌이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 차트에 이

4) 구체적인 사항은 「K-팝 20년 … ‘현지화 전략’ 보아에서 한국어로 부르는 방탄까지」, 『한겨레신문』 인터넷판, 2019.5.11. 참조 (검색일자: 2025년11월10일)

름을 올리며 여러 국가의 중심 언론과 방송 프로그램에 일상적으로 출연한다.

글로벌 대중음악의 중심이 된 K-팝은 이제는 세계 대중음악의 표준이자 큰집이 되었다. 말하자면 글로벌 대중들은 물론이고 각국의 유명한 뮤지션들까지 K-팝을 커버하고 K-팝과 협업하기를 희망한다. 또 다양한 외국의 ‘떡잎’들이 K-팝의 스카우트와 제도에 힘입어 K-팝 스타로 성장한다. 그들은 한국—문화의 빛 가운데서 ‘K-’의 생산자이자 확장자—특히 자국의 가교로서 존재하며 기능한다. 예컨대 리사(블랙핑크)와 한국에 대한 태국인들의 애정과 관심, 쯔위(트와이스)와 한국에 대한 대만인들의 성원과 지지는 K-팝 나아가 한국—문화의 긍정적 영향력과 지경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K-서사의 경우 <기생충>(2019)이 글로벌 중심에 진입하는 신호탄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K-팝의 선도에 합류하며 함께 K-컬처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게다가 때마침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만개한 OTT(Over The Top)를 타고서 <킹덤>(2019·2020), <디피(D.P.)> (2021), <오징어 게임> (2021), <지옥> (2021), <지금 우리 학교는> (2022) 등등이 글로벌 수준에서 최고 수준의 수용력을 기록하며 K-서사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이후에도 글로벌 대중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부단히 내놓고 있는바, 현재는 최상위권 콘텐츠에 K-서사물들이 랭크돼있는 것이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다. 또 무비·드라마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과 웹툰·웹소설 등까지 상승하며 글로벌 대중에게 환호받고 있다. 끝꼬가 트이고서 이제는 K-서사가 글로벌 전역에 편재(遍在)하며 충만한 형국이다.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도 <오징어 게임>과 <지옥>은 K-서사의 어떤 임계를 뛰어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특기될 필요가 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은 190여 개의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넷플릭스 사상 가장 흥행한 콘텐츠가 되었고, 시즌2와 시즌3까지도 주목 할 만한 기록을 세웠으니, <오징어 게임>으로 K-서사는 전 세계 글로벌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됐다고 하겠다.

<지옥>의 경우는 문화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즉 단순한 오락물로서가 아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 콘텐츠로서 K-서사를 인식시킨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유력 일간지 『가디언』에서는 <지옥>과 <오징어 게임>을 비교·분석하며 평가한 기사를 내놓은 바 있다. 먼저 보도됐던 『CNN』의 ‘지옥은 새로운 오징어 게임’이라는 평가⁵⁾를 의식한 듯 <지옥>과 <오징어 게임>은 아주 다른바, 특히 <지옥>은 <오징어 게임> 같은 쉬운 재미가 아니라, 그것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인간에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10년 후에도 여전히 화제가 될 콘텐츠는 <오징어 게임>보다는 <지옥>일 것이라고 장담한다.⁶⁾ 부연하자면 <지옥>은 할리우드의 단순 오락물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

5) Stuart Heritage, “Hellbound: the South Korean death-fest that wipes the floor with Squid Game”, *the Guardian*, 2021.12.25(date of searching: 2025.11.12)

6) Lisa Respers, “‘Hellbound’ is the new ‘Squid Game’”, *CNN*, 2021.11.23(date of searching: 2025.11.12)

지를 전하면서도 대중성도 지닌, 의미—가치와 흥미를 겸비한 훌륭한 콘텐츠라는 것이다.

3. K-컬쳐 성립에 있어서 서사의 중요성과 의미

언어가 여타 생명체들이 범접할 수 없는 인간만의 고유한 사유·소통 체계라면, 이야기(+하기)는 언어의 전형적인 생산 방식이자 그 자체가 생산물(예술작품·문화텍스트)이기도 하므로, 서사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보편적인 미디어(수단·방법) 겸 콘텐츠(내용)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야기들이 일정 수준으로 다른 지역에 수용됐다면 그 근원 문화가 그 지역에 자리잡혔다고 볼 수 있다. 대중음악(K-팝)만으로는 불충분했던 글로벌 보편 문화로서 한국문화의 위상은 대중서사가 보완됨으로써 확증됐고 그때 비로소 한국문화는 K-컬쳐로 거듭났던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문화는 서사와 함께 글로벌 보편 문화로 등극했다고 하겠다.

(대중) 음악과 (대중) 서사는 다른 미디어다. 가사 있는 음악 역시 서사와 마찬가지로 특정 언어가 수용 요건이지만 서사에서처럼 절대적이지는 않다. 음악에는 특정 언어 이전에 사람을 충동하는 보편 언어인 리듬과 멜로디가 선행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무가 곁들어지면 특정 언어의 장벽은 한층 낮아진다. 충분히 매력적인 리듬과 멜로디라면 시각적 자극(안무 퍼포먼스)만 더해져도 만족할 만한 수용이 가능하며, 나아가 자기 몸을 통한 직접적 참여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대중음악은 치명적인 자극과 중독성을 지녔으므로 다른 미디어·장르에 비해 팬덤이 견고하고 충성도도 매우 높다. 가수에 대한 문화적 편견도 크게 작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가수와 음악의 근원 문화를 향한 관심과 애정 때문에 가수·음악 관련 굿즈 소비나 팬픽 같은 재생산은 물론이고 언어나 음식 등의 근본적인 문화 수용에도 적극적이다.

하지만 서사의 수용에서는, 예외적 장르나 텍스트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언어와 문화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동한다. 서사란 의미를 둘 만한 인간 삶의 이모저모를 특정한 인물·배경·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나가는 것이기에 그 향유에는 일정 수준의 언어적 해득력과 문화적 공감대가 필수적인 까닭에서다. 그리고 서사에서는 등장인물과 배경(지역·국가) 자체가 관심사가 되는 까닭에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이 작동할 여지가 크다. 등장인물의 인종·국적·외모 등이나 이야기가 펼쳐지는 지역·국가에 대한 이미지와 호불호가 얼마든지 서사 수용의 관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특정한 배경과 인물의 서사가—말하자면 한국(인)의 서사가 글로벌 수준에서 꾸준히 수용되고 있다면, 그것은 한국(인)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글로벌 수용자들에게 두루 친근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K-팝과 약 10년의 시차를 보이는 최근의 상황이다.

대중음악과 대중서사는 수용 연령대의 차이도 크다. 글로벌 유행을 선도하는 대중음악의 수용층은 젊은 세대로 한정될 수 있으며 연령대의 확장성이 적다. 그 음악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감각과 정서는 젊음이 전유하는 일종의 문화적 유전자(DNA)인

까닭이다. 그에 비해 대중서사의 수용 연령대는 훨씬 넓다. 일단 문화적 장벽이 해제되고 나면 순순히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III. 고전서사를 모태로 하는 K-유니버스의 구축과 K-문화영토의 확장

1. K-유니버스의 전조로서 K-팝 아이돌 유니버스의 시사점과 한계

K-팝 유니버스란 대개 아이돌 그룹을 중심으로 하는 TMS와 유니버스 구축을 의미한다. 그 방식은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서사들이 제시되고 그것이 팬덤 세계에서 다시 확대-재생산을 거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팬들과 아이돌 간에는 더욱 공고한 공동체적 유대감이 생성되는바, 그 서사를 분석 및 해석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팬 아트나 팬픽 같은 2차 창작물이 폭증하게 된다. 이러한 열기 양상은 어느 언론이 선정한 ‘최고의 세계관을 가진 아이돌’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말하자면 방탄소년단은 데뷔할 즈음에 불안정한 청춘의 단면을 ‘BU 세계관(BTS Universe)’에 담아 내놓은 후에 ‘학교’, ‘화양연화’, ‘윙스’, ‘러브유어셀프’, ‘스피크유어셀프’ 시리즈들에서 일관되게 이어갔다. 이 유니버스는 글로벌 각국에서 팬덤 아미(ARMY) 형성과 그들이 공동체적 연대감으로 하나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엑소와 방탄소년단 이후 등장한 아이돌 대부분은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세계관을 갖추고, 이를 무기로 세계 무대에 도전장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다.⁷⁾

그런데 글로벌 대스타인 K-팝 아이돌의 공연 레퍼토리에는 한국 전통적인 요소가 특별히 가미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방탄소년단이 오프닝 공연으로 ‘아리랑 연곡’을 다른 K-팝 아이돌들과 함께함으로써 유럽 K-팝 팬들의 ‘아리랑 빼창’이 파리에 울려 퍼지게 하거나(KCON 2016 France × M COUNTDOWN), <아이돌> 국악 버전(2018)을 통해 추임새와 장단을 구사하며, 해금·장구·꽹과리·가야금 등의 전통악기 연주와 삼고무·부채춤·봉산탈춤·북청사자놀음 등의 전통공연을 선보인다. 블랙핑크가 여러 공연과 동영상을 통해 한옥 스타일의 공연무대를 연출하고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보여주며 멤버 중 하나인 지수가 가야금을 연주한다. <캐데현>에서는 더욱 많은 한국전통 요소들이 더욱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며 다차원적인 양태로 나타남으로써, 이상의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몸짓이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 전통들과 긴밀한 협연적·정신적·문화적 맥락과 연결고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응변하는 듯하다.

이와 같은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K-팝 아이돌들이 어느 정점(頂點)에 오를 때나 결

7) 신윤애, 「포브스 선정 ‘최고의 세계관을 가진 아이돌’은?」, 『포브스 코리아』, 2022.7.24(검색일자: 2025년11월 10일)

정적인 순간일 때 뿐리 깊은 나무임을 자임하듯이 한국—전통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여느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돌들도 결국에는 —거시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조상과 전통에 귀의하게 마련인 셈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장 독특한(unique) 것으로 최고를 지향하는 전략적이기도 하다.

다만 이 충성스러운 한국 아이돌들일지라도, 그들의 음악은 향유 연령층이 제한적이어서 보편적 확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욱이 TMS와 유니버스 창출의 중심적인 인자가 그 멤버들 자체이므로 지속성이 그 활동 기간과 함께 사실상 종료된다는 한계도 있다.

2. K-컬처의 창발과 지속 전략으로서 고전서사 모태의 K-유니버스 구축

최근의 다발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한국 대중서사에 있어서 TMS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단발적 성공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양상일 뿐이어서 그것들에는 트렌드적 유사성은 있을 수 있어도, 상호 연결되거나 소통되는 서사적 요소들이 없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한국 대중서사가 할리우드에 벼금간다순 치더라도 콘텐츠의 지속적 영향력이나 수익성 같은 질적인 측면에서는 할리우드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것이다. 할리우드의, 유기적인 TMS를 통하여 구축된 견고한 세계관과 해당 콘텐츠들은, 독립적인 한국 콘텐츠들과는 달리, 통합성과 연속성 가운데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TMS를 통한 세계관 구축에 있어서 현재 한국 대중서사에 가장 긴요한 사항은 거시적 기획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는 콘셉트·신세계·블루오션 등과 같은 새로운 차원을 용기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창조 또는 개척하는 일로서, 어쩌면 한국문화사에서 가장 취약한 자질 또는 전통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인류사 최고(最古) 인쇄술은, 인쇄가 지닌 대단한 역할과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지식정보의 수평적 확산이 아닌 수직적 보존에만 활용되었고, 최고(最高) 표음문자는 지식의 보편적 공급을 통한 근대적 시민 육성의 수단으로 제때 활용되지 못했다. 최초의 SNS 형식이라 할 수 있는 싸이월드는 제한적인 관계·소통망('사촌') 속에서 소꿉장난 같은 꾸미기와 관련 마케팅(도토리·아이템)이 비대해진 채로 목적에 충실한 SNS들의 등장 이후에 요동하다가 결국에는 소멸하고 말았다. 스마트폰의 경우 개별 기술력만 놓고 볼 때는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될 수도 있었던, 새로운 차원에 대한 용기와 적극성에서 비롯된 기획과 편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문화사에는 큰 구상—거시적 기획의 결여로 인하여 새로운 차원 또는 패러다임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호기를 안타깝게 놓친 경우가 적잖았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해 본고는 한국의 특유한 TMS와 세계관 구축을 위한 거시적 기획이 지금의 한국 대중서사에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앞서 생각해둘 문제는 거시적 기획을 감당할 만한 대상(소재)과 주체(자본)이다. TMS의 전개와 세계관 구축에는 상당한 규모의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 자원과 거시적 기획 그리고 거대자본이 필요하다. 생산-판매-마케팅 등 문화콘텐츠 산출 전 과정에 관한 능력은 기본이다. 이상을 한국문화산업에 대입해본다면 거대자본과 문화콘텐츠에 관한 전 과정적인 능력의 조건은 이미 구비 및 검증됐다고 생각된다. 추가돼야 할 조건은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 자원’이며, 그것을 기준 자본 및 능력과 결합하는 거시적 기획으로써 한국적(韓國的·韓國籍) TMS와 세계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둘 중 대상은, 상당한 규모의 새롭고 특별한 이야기 자원과 한국적 TMS·세계관 창출이라는 조건에 비춰보면 한국 고전서사라는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구가하는 한국 대중서사 콘텐츠는 현대물이 다수이므로 관점과 인식 여하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근거와 논리가 요청될 수도 있는바 곧 상술하겠다. 주체는 거시적 기획과 함께 TMS의 구체적 방향·지침과 콘텐츠 산출을 통합적으로 관장해야 한다. 이는 마블의 경우가 참고될 만하다. 마블 세계관은 마블 스튜디오 회장 케빈 피아기(Kevin Feige)가 진두지휘하는 ‘제작위원회’(주요 부서 책임자 6인 구성)가 거시적 기획과 총괄적 진행을 하면서 단계에 맞춰 해당 콘텐츠를 감독 등에게 제작하게 한다.⁸⁾ 한국은 사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①상당한 규모, ②새롭고 특별함, ③한국적이라는 요건을 모두 고른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의 고전서사에 대해 상술하고자 한다.

고전서사를 염두에 둔 원형콘텐츠 문제로 국한한다면 한국 문화산업의 잠재력과 경쟁력은 할리우드 이상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한국고전서사에는 TMS를 전개해 갈 수 있는 원형콘텐츠가 풍부하며 독특한 세계관을 창출할 수 있는 서사군들과 그것들로 재구성할 수 있는 경우의 집합 수도 다대하다. 이를테면 고전서사의 독특한 이원론적·일원론적 세계관과 시공간관(천상·꿈·용궁 등) 및 해당 작품들의 복잡계로부터 매력적인 캐릭터와 이야기 세계를 얼마든지 활용하거나 가공할 수 있고, 여기에 역사적·허구적으로 존재해온 인물과 우화적 존재(동식물·사물 등), 환상적 존재(귀신·괴물·이물 등) 등을 더하여 더욱 참신하고 풍부한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다. 더욱이 고전서사에는 문화산업 전문가들이 강조하면서도 놓치게 되는 TMS의 특성과 가능성, 즉 비슷한 내용·캐릭터를 지닌 작품군과 원활한 혼합 조건인 느슨한 서사적 구조가 다양하게 공유돼 있다. 이는 고전서사의 생성 기반인 전근대의 구술문화와 로맨스 서사의 특성이기도 하다. 근대소설(novel)은 긴밀한 1차원적 선형 서사 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구술적 전통을 지닌 서사와 로맨스에는 2차원적인 평면에서 느슨하게 펼쳐지는 서사 구조에, 비슷한 내용·

8) 「블록버스터의 성공 전략을 바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결정적인 순간들과 공식들」, 『기술과 혁신』 453,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22, 5·6월호, 참조.

캐릭터를 여기저기서 끌어오는 특성이 있다.⁹⁾

비슷한 내용과 캐릭터는 TMS 전개와 세계관 구축의 기본 조건이며, 서사적인 공백은 서사를 TMS 방식으로 혼합하기에 유리한 조건이다.¹⁰⁾ 이 조건을 토대로 삼고 위에 언급한 고전서사의 다양·다대한 요소들을 필요에 따라 혼합해가며 한국고전서사의 TMS 및 세계관 창출 방법(론)을 통합적으로 예시해보겠다. 들어가기 전에 전제해두고 싶은 사실은 마블 TMS와 유니버스를 의식해 영웅서사를 제시할 수도 있겠고, 한국고전서사 역시 풍부한 영웅서사를 보유하고 있으나, 더 특별한 한국고전서사의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 여기서는 다양한 우의(寓意)의 세계관을 조직할 수 있는 의인화(擬人化) 서사¹¹⁾ 중심으로 보이도록 하겠다. 더욱이 여하한 서사의 주인공에게는 영웅성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영웅서사로 변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한국고전 의인화 서사는 풍부한 소재에 의한 다양한 이야기 세계를 자랑한다. 또 그 세계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제된 자료도 많은 편이다.¹³⁾ 다만 그 자료들 자체가 널리

9) 마셜 매클루언, 김상호 역,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166~177쪽; 월터 J 용,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52~122쪽; 로버트 솔즈·로버트 켈로그·제임스 펠란, 임병권 역, 『서사문학의 본질』 수정증보판, 예림기획, 2007, 47~102쪽 등 참조.

10) 이동진, 「우리 슈퍼히어로들만 등장한다면… 어, 만화 스토리가 게임·영화로 이어지네」, 『동아비즈니스리뷰(DBR)』 201, 2016; 이현중, 「한국영화와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그 가능성과 한계」, 『한류NOW』 3·4, 2020 등 참조.

11) '의인화', '가전(假傳)', '우언(寓言)', '우화(寓話)'는 문학에서 사실상 동의 개념이나 연구(자)에 따라 다른 용어를 사용하여 통일성이 없어 보이기도 한다. 물론 '가전'과 '우언'은 한국(동아시아) 고전문학의 역사적 개념이므로 그 사용상의 배경과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의인화'를 채택하는 이유는 본고가 한국 고전문학 비전공자들을 본고의 주요 독자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즉 '의인화'는 일정한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에게도 인간이 아닌 것으로써 인간의 이야기를 하는 문학적 기법이라는 의미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또 '환상(판타지)', '꿈' 등과 함께 한국고전서사의 특징적 서사 기법 개념을 구분 및 운용하는 데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환상의 서사, 꿈의 서사, 의인화 서사.

12) 장르 개념으로서 '영웅서사'는 소위 '영웅 여정의 17단계(the 17 Stages of Monomyth)'(조지프 캠벨, 이윤기 역,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 전면개정판, 민음사, 2018, 65~440쪽), '영웅의 여정(the Hero's Journey)' 12 단계(크리스토퍼 보글러, 합чин성 역,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비즈엔비즈, 2013, 121~287쪽), '영웅의 일생' 7단계(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288~325쪽) 등의 서사 구조를 갖는 것들을 가리킨다. 즉 장르명 영웅서사는 이러한 여정(단계)을 충실히 밟지 않거나 아예 그런 여정과는 무관한 텍스트에는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는다. 가령 조동일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고전 영웅 소설 중 영웅의 일생 7단계를 완벽하게 밟은 작품은 <홍길동전>과 <유충렬전> 정도에 불과하며, <장풍운전>·<양풍전>의 경우 단 한 단계도 완벽하지 않으며, <구운몽>·<금방울전>의 경우에는 고작 한 단계에 불과하다(조동일, 앞의 책, 324~325쪽). 그럼에도 이들을 영웅소설로 분류하는 이유는 전형적인 작품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서사적 구조와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3) 이정탁, 『한국풍자문학연구』, 이우출판사, 1979; 『한국우화문학연구』, 삼우출판사, 1982; 김광순, 『한국의 인 소설연구』(재판), 새문사, 1982(2004); 김창룡, 『한국의 가전문학』 상·하, 태학사, 1997·1999; 『가전문학의 이론』, 박이정, 2001; 『가전산책』, 한성대학교출판부, 2004; 『가전을 읽는 방식』, 제이엔씨, 2006; 『가전문학론』, 박이정, 2007; 『조선의 문방소설』, 월인, 2013; 『문방열전(한국편)』, 보고사, 2013; 정출현, 『조선 후기 우화소설 연구』, 고려대학교출판부, 1999; 윤주필, 『틈새의 미학: 한국 우언문학 감상』, 집문당, 2003; 『한국 우언산문 선집』 1·2, 박이정, 2008; 『조선 전기 우언소설』(한국고전문학전집 14), 문학동네, 2013; 『한국 우언 문학사』 1, 한국문화사, 2019 등. 이상에 더하여 김광순 편, 『김광순 소장 필사본 한국고소설전집』 (84권), 경인문화사·박이정, 1993~2011; 『한국고전문학전집』 (37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3~2006; 김광순 외, 『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66권), 박이정, 2014~2021;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 큰사전』 (74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한국 고전소설 등장인물 사전』 (25권), 지식을만드는지식, 2012; 『고전소

알려져 있지도 않을뿐더러 비전문가(전공자)들이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왜냐면 고전의 현재화라고 하더라도 작품들의 선별과 배치에는 일정한 기준과 관련 식견이 필요한데 쉽게 해제된 자료라고 해도 그러한 사항까지 안내돼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현재 대중의 관점에서 가장 접근이 쉬워 보이는 한국고전 의인화 서사 자료는 6개 분야, 28권, 78편 작품으로 구성된 『천년의 우화 컬렉션』(돌도래, 2018~2020)이다.¹⁴⁾ 이 자료는 전자책인 데다, 한국고전서사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편집 및 번역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포함하여 여타 해제 자료들도 그 자체로는 현대콘텐츠로의 재매개, 특히 TMS와 세계관 창출의 직접적 지원이 되기에는 한계가 많다. 먼저 전모를 파악해볼 수 있도록 이 자료의 총람표를 만들어 보이겠다.

[표 1]

구 분	권번	수록 작품명	중심 소재
동물편	1	호질, 산군전	호랑이
	2	오원전, 오원자전	고양이
	3	토끼전, 녹쳐사연희, 굴승전	토끼, 사슴, 말
	4	서동지전, 서대주전	쥐, 다람쥐
	5	장끼전, 까치전, 황새결송, 금의공자전	펭, 까치, 황새, 피꼬리
	6	청강사자현부전, 와사옥안, 노섬상좌기	거북이, 두꺼비, 두꺼비
	7	곽삭전, 메기장군전	계, 가자미/메기
	8	금수회의록, 둔마전	동물들, 말
	9	서옥설	쥐
식물편	10	죽존자전, 죽부인전, 포절군전, 관자허전	대나무(4편 동일)
	11	화왕계, 화왕전, 화왕전	모란, 모란, 모란(3편 동일)
	12	화사	꽃 나라 역사

설 줄거리 집성』 1·2, 집문당, 2002; 서대석 외, 『우리 고전 캐릭터의 모든 것』 (4권), 휴머니스트, 2008; 조 동일, 『한국문학통사』 제4판 (6권), 지식산업사, 200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14) 물론 이 자료가 한국 고전 의인화 서사 작품을 모두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동물편' 6권에 실린 '두꺼비' 소재 서사는 대개 두꺼비 '蟾(섬)'자가 들어가는 '두껍전류'(금섬전, 노섬상좌기, 섬동지전, 옥섬전, 섬공전, 섬자호생의설전, 섬설록, 섬처사전, 오섬가 등;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https://encykorea.aks.ac.kr>); 조희웅, 앞의 책, 2012 등 참조) 작품군 중 2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료만으로도 상당한 TMS와 세계관 창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13	안빙목유록	꽃 꿈
	14	매생전, 대부송전, 빙호선생전	매화, 소나무, 무
문방사우편	15	저생전, 저백전	종이, 종이
4권	16	관처사묘지명, 관성후진, 관성자전, 모원봉전	붓(4편 동일)
16편	17	진현전, 진현전, 진현전, 진현전, 석탄중전	먹(4편 동일), 벼루
	18	서재야회록, 사우이합문답기, 모영전보, 사우열전, 연적전	문방사우(4편 동일), 연적
생활도구편	19	규중칠우쟁론기, 여용국전, 각로선생전	바느질 도구, 화장도구, 족집게
4권	20	정시자전, 저군전, 청풍선생전	지팡이, 절굿공이, 부채
11편	21	탕파전, 탕파전, 옹후묘지명	보온물통(2편 동일), 항아리/술
	22	공방전, 전신전	엽전, 돈
기호품편	23	국순전, 국선생전, 국수제전, 국청전	술(4편 동일)
3권	24	환백장군전, 취향지, 빙도자전	술, 술, 열음
11편	25	남령전, 남령전, 담파고전, 남생전	담배(4편 동일)
기타	26	주장군전, 관부인전	남자성기, 여자성기
3권	27	용부전, 의승기, 천군전, 천군전	계으름, 의로움, 마음, 마음
7편	28	수성지	마음/술/근심

1) ‘비슷한 내용과 캐릭터’ 요건

우선 이 표만으로도 TMS 구성과 세계관 창출의 다양한 가능성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작품명과 중심 소재만으로도 첫 번째 기본적(필수) 요건인 ‘비슷한 내용과 캐릭터’를 알아볼 수 있는 작품들과 그것들로 엮을 수 있는 그룹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동일 소재의 다른 작품인 경우가 ‘식물편’, ‘문방사우편’, ‘생활도구편’, ‘기호품편’ 및 ‘기타’에 다양하게 많다. 즉 10권(대나무 4편), 11권(모란 3편), 15권(종이 2편), 16권(붓 4편), 17권(먹 4편), 18권(문방사우 4편), 21권(보온물통 2편), 23권(술 4편), 24권(술 2 편), 25권(담배 4편), 27권(마음 2편)이며, 함께 실린 작품들도 17권의 ‘벼루’, 18권의 ‘연적’, 21권의 ‘항아리’, 24권의 ‘열음’, 27권의 ‘계으름, 의로움’ 등 유사 또는 유관 소재이다. 또 19권, 20권, 22권, 26권, 28권은 밀접한 소재를 다룬 작품들의 묶음이다.

둘째, ‘동물편’은 동일 소재가 많지 않아 보이나, 앞서 언급한 ‘두껍전류’처럼 동일 소재의 작품군이 적잖으며,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라도 상호 서사적 유관성과 캐릭터의 중복을 고려하면 다양한 묶음이 가능하다. 예컨대 3권의 <鹿處士宴會(녹처사연회)>는 동물들이 윗자리 다툼을 벌이는 이른바 ‘쟁좌형爭座型’ 서사인데, 여기에는 사슴 외에 노루(獐先生)와 호랑이(白虎山君), 두꺼비, 구미호(九尾狐) 등이 등장하며 다양한 서사와 캐릭터 그룹을 생성할 수 있다. ①노루는 사슴과 유사한 소재인 데다 기왕에 유사한 서사를 지닌 <獐先生傳(장선생전)>이 있다. ②두꺼비는 신선 세계에서 내려온 관리의 서사인 ‘선관형(仙官型)’과 해와 달의 정을 노래하는 서사인 ‘일월형(日月型)’의 주인공이기도 하므로 서사의 내용과 무대를 바꿔 새로운 TMS를 전개할 수 있다. 또 신선 세계(仙境, 仙境)를 포함하는 세계관과 엮을 수 있다. 즉 ③호랑이는 백호산군(白虎山君)으로 나타나는바 산신인 산군 중에서도 더욱 영험한 백호로서 선관 두꺼비와 통할 수 있다. ④구미호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공유되는 서사·캐릭터이기도 한 데에다, 인기 있는 현대 콘텐츠에도 줄곧 등장한 이력이 있으므로 글로벌 대중에게도 꽤 유명한 캐릭터이자 소구력이 높은 판타지 서사 및 세계관의 창출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2) ‘서사적 공백’ 요건

그렇다면 두 번째 요건인 서사적 공백—느슨한 서사 구조는 어떠할까. 이는 주지돼있는바 전근대 서사 일반의 특징이다. 이것은 근대 서사(novel)의 기준에는 ‘미흡’(단점)으로 간주되기도 했으나 다시 새로운 서사 문화사의 전개 앞에서 장점으로 변신하는 중이다. 그러나 논의 과정상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다음은 『鼠獄說(서옥설)』¹⁵⁾의 초반부로서, 이 작품의 중심적 내용과 구조인 반복적 서사 패턴이 처음 나타나는 부분까지의 인용이다.¹⁶⁾

[가] 옛날엔 조용하고 외딴곳에 곳간을 짓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혹시라도 마을에 불이 났을 경우, 양식을 쌓아둔 곳간으로 옮겨붙을 수 있어서였다. 그래서인지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었다. 주변엔 풀들이 무성했고, 울퉁불퉁한 돌들이 어지럽게 흘어져 있었다. 또 담벼락은 이끼로 덮였고, 돌계단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

[나] 어느 우묵한 굴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몸길이는 반자나 되고, 털 길이

15) 이 작품의 작자는 김태준『조선문화사』에서 임제로 거명된 바 있으며, 북한과 중국 학계 및 일부 해외에서도 임제로 간주하기도 하나, 신빙성 있는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우리 학계에서는 미상으로 본다. 그러나 본고는 고전 비전문가 문화콘텐츠 개발자들에게 맞춘다는 취지 아래 ‘천년의 우화 컬렉션’을 텍스트로 제시하고 그것을 인용했는바 작자 명 ‘임제’를 그대로 두었다. 다만 학술적 엄밀성을 위해 정병호 역주, 『서옥설·명 배신전』(김광순 소장 필사본 고소설 100선 3권, 박이정, 2016)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및 본문 대조 작업을 거쳤음을 밝혀둔다.

16) 임제, 김순기 역, 『서옥설』(천년의 우화 컬렉션 9권), 돌도래, 2018, 5~11쪽.

도 두어 치가 넘었다. 이 늙은 쥐가 어찌나 교활하고 속임수가 뛰어나던지, 무리는 그를 우두머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이 늙은 쥐는 많은 일을 벌였는데, 밥 짓는 솔에 구멍을 내는 것은 물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매달기까지 했다. 그 간교한 계략과 비상한 꾀가 이 정도였다.

[다] 하루는 늙은 쥐가 무리를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

“우리가 사는 이곳은 천적을 막아주는 울타리도 없거니와 양식을 저장할 곳도 없다. 게다가 사람이나 개에게 습격을 당하기 딱 좋은 곳이니, 아무래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리석게 살아온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나라에서 세운 곳간에 쌀이 남아돌아 썩기까지 한다고 들었다. 만약 우리가 그곳에 구멍을 내고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거라. 아마도 향기로운 쌀을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며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즐겁지 않겠느냐? 이것은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선물이니라.”

⑦이윽고 큰 무리의 쥐 떼가 곳간 문 앞에 다다랐다. 그리고 불과 반나절도 못되어 문 옆 담장 아래에 나무 기둥이 들어갈 정도로 큰 구멍을 내고는, 모두를 이끌고 곳간 안으로 들어갔다. 수천 마리의 쥐 떼가 대들보 위에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서로 부딪혀 아래로 떨어지는 통에 쌀알들이 어지럽게 흩어졌다.

⑧무리들이 그렇게 놀며 뛰며 마구 먹어댔지만 다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쌀이 많았다. 그 후로도 무리는 배가 고프면 먹고, 배가 부르면 쉬면서 10년을 꼬박 그렇게 지냈다. 그러자 그 많던 곳간의 양식이 거의 바닥을 보일 지경에 이르렀다.

⑨그러던 어느 날, 곳간을 맡은 신이 장부를 살펴보더니 깜짝 놀라고 말았다. 곳간의 수량이 엄청나게 줄어 있었던 것이다. 곳간 신은 그 즉시 병사를 불러 늙은 쥐를 당장 잡아오라 명을 내렸다.

⑩ⓐ 곳간 신은 늙은 쥐를 향해 큰소리로 호통을 쳤다.

“성안에 살림집이 네 놈이 살 곳이고, 길가에 똥 덩이가 네놈의 밥인데 너는 어찌하여 감히 곳간에 구멍을 뚫고, 100년간 모아둔 양식을 다 먹어치워 백성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가? 마땅히 엄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게 뿌리를 뽑을 것이다. 그러나 당장 네놈의 무리와 네놈을 꼬드긴 자가 누구인지 숨김없이 말하라.”

ⓑ 늙은 쥐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예를 갖추며 말했다.

“이 늙은 몸은 보잘것없지만, 천성은 원래 욕심이 없어 깨끗합니다. 또 별의 정기를 타고났으며, 하늘과 땅의 기운도 받았지요. 비록 짐승의 왕은 아니오나, 그렇다고 하찮은 부류 또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인들이 시경(고대 중국의 시가를 모아 엮은 시집)에서 저에 대해 읊었고, 군자들 또한 예기(중국 고대의 유교경전)에 제 이름을 먹히니 적어 놓은 것이겠지요. 이렇듯 저와 사람 사이의 인연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로 째진 눈과 우뚝 선 코를 가진 사람조차 한 해 꼬박 농사를 지어 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판에 저는 대대로 이어온 가업마저 뭉뚱 없어졌으니 생계가 어려워짐은 불 보듯 뻔하지요. 그러다 자연스레 이곳으로 이끌렸고, 거와 쪽정이로 주린 입과 배를 채운 것뿐입니다. 저라고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정말로 밖을 아

무리 들아다녀도 먹고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저의 죄는 크나 약간의 인정을 베푸신다면 용서할 만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게다가 요사이 저의 입안에 액운이 끼어 후손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굴에선 여러 명의 자식이 죽었고, 서쪽에 있는 집에선 몇에 걸려 손자들이 물살을 당했지요. 이렇게 비참한 와중에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몸조차 늙어 걸을 때마다 숨을 헐떡거리는데, 이런 저를 누가 의지하고 따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저를 꼬드긴 자를 말하라고 하시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곳간 벽에 구멍을 뚫기 위해 그 주변을 요리조리 살피는 중에 담장 모퉁이에 작은 복숭아나무가 저에게 미소를 지었지요. 그리고 돌계단 앞에 가느다란 벼드나무는 저를 향해 살랑살랑 춤을 추었습니다. 아마도 미소를 지은 까닭은 저의 배부름을 기뻐한 것일 테고, 춤을 춘 까닭은 좋은 곳에 터를 잡은 것을 축하한 것일 테지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미소와 춤이야말로 저에게 힘을 내라며 응원을 해준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⑤곳간 신은 불처럼 화를 냈다.

“문을 뚫는 악행을 보고도 웃기만 했으며, 쌀을 훔치는 놀랄 만한 광경을 보고도 춤까지 추었다니, 마치 그 옛날 하나라의 폭군 결왕을 보고 잘한다며 칭찬을 하는 꿀이니 마땅히 법으로 다스릴 것이다.”

곳간 신은 말을 마치자마자 기묘한 주술을 부려 복숭아나무 신과 벼드나무 신을 꽁꽁 묶어 잡아들였다. 그러곤 그들을 나무랐다.

“너희가 사는 곳에 쌀을 훔치는 도둑이 들었음에도 이를 막거나 알릴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짓고 춤까지 추었다니 대체 어찌 된 일인가?”

⑥복숭아 신은 넓죽 엎드린 채로 말했다.

“저는 추운 겨울엔 꽃을 감추고 있다가, 봄이 되면 마침내 꽃받침을 펴기 시작하지요. 그 위에서 피어나는 꽃봉오리들은 마치 짙은 다흥빛의 연지를 찍어 바른 듯하고, 얇은 보랏빛의 비단을 걸친 듯 아름답기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타고난 본성이며 조물주의 신비한 조화지요. 그러니까 그날은 살랑살랑 봄바람에 가슴이 설레어 미소를 지은 것이지,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누가 들으면 부끄러워 얼굴이 뺨개지고, 배를 움켜쥐고 크게 웃을 일이지요.”

⑦이번엔 벼드나무 신이 말을 이어갔다.

“독에 내리던 비가 개고, 골짜기에서 바람이 불어와 저의 가느다란 가지들이 하늘하늘 나부끼는 모습은 그 옛날 맑고 깨끗한 심성을 가졌다던 제나라의 장서를 떠올리게 합니다. 또 수많은 가지들이 산들산들 흔들리는 모습은 마치 당나라의 시인이었던 왕유가 촉촉이 내린 비로 한점 티끌도 없는 청명한 봄날에 여관 앞에 있던 벼드나무를 보며읊은 시를 연상케 하지요. 말하자면 봄을 맞아 저는 기운이 샘솟았고, 가지들이 이리저리 자라며 흔들렸던 것이지, 절대로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활한 늙은 쥐의 거짓말에 분통이 터질 뿐입니다.”

⑧곳간 신은 두 나무의 진술을 다 듣고는 그 둘을 모두 옥에 가두었다.

⑨그리고 다시 늙은 쥐를 불러 물었다.

“그들의 행동은 각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다시 묻겠다. 네놈을 훔치게끔 만든 자가 누구냐?”

늙은 쥐가 대답했다.

“곳간의 문을 지키는 신인 문신과 출입구와 대들보를 지키는 신인 호령이 저를 부추겼습니다.”

⑤그 즉시 곳간 신의 불호령이 떨어졌고, 2명의 신을 잡아다가 머리엔 주머니를 씌우고, 목엔 형틀을 채워 마당 아래에 앉히고 구조를 시작했다.¹⁷⁾

‘[가]’는 배경, ‘[나]’는 인물, ‘[다]’는 사건에 해당하며 각 부분이 공히 아주 간결하게 진술돼 있다. 최소한의 빠대만 갖춘 모양으로 세 부분 간의 연결에 어떤 인과성이나 서사적 흐름이 없다. 즉 “또 담벼락은 이끼로 덮였고, 돌계단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다.”([가]의 종결) “어느 우뚝한 굴에 늙은 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나]의 시작), “그 간교한 계략과 비상한 꾀가 이 정도였다.”([나]의 종결) “하루는 늙은 쥐가 무리를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다]의 시작)이다.

이처럼 부분들의 서술 자체에도, 그것들 간의 연결에도 빈틈이 많다. 그러므로 새로운 의도에 따른 세밀한 서술이나 풍부한 장면의 삽입, 부분들 간 배치의 변환, 아예 다른 외부 텍스트 서사와의 혼합 등 서사적 조정과 배치가 대단히 자유로운 편이다. 이는 수월한 TMS의 조건이다.

사건이 본격적인 전개를 보이는 ‘[다]’의 ‘㉠-㉡-㉢-㉣’의 서사적 구조도 매우 느슨하다. ‘㉠’은 늙은 쥐의 말 바로 다음 부분인데 이미 곳간을 뚫고 들어간 쥐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은 곳간에서 먹고 놀고 지내는 쥐 때의 모습인데 무려 10년이 훌쩍 지나갔다. ‘㉢’에서도 ‘어느 날’ 갑자기 곳간의 식량이 확 줄어든 것을 담당 관리가 알게 된다. 쥐 때들이 곳간의 식량을 축내기 시작한 후 10년이 지나 바닥을 드러낼 지경이 되는 동안 뭐하다가 별안간 나타난 것인가 할 만큼 서사적 공백이 크다.

밑줄 친 부분들도 이와 같은 서사적 공백이나 모순이 드러난 예들이다. ‘100년간 모아둔 양식’(㉠)이 10년 만에 ‘거의 바닥을 보일 지경’(㉡)이 된 것이나, 식량을 100년간 보존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또 사건의 처결 과정에서도 곳간 신이, 사태 파악 즉시 늙은 쥐를 당장 잡아 오라 명하는 것(㉢)이나, 늙은 쥐의 죄를 물으면서도 방관자 내지 조력자(‘꼬드긴 자’)를 실토히라는 것(㉣)은 너무 앞서간 경우이다. 어떤 조사나 판단의 근거도 없이 늙은 쥐를 수괴로 특정했던 것으로서 내용을 보충하는 새로운 서사를 삽입하거나 다른 서사와 교차(혼합)하기에 적합한 지점이다. 또 쥐들의 죄와 방관자(조력자) 간 관련성에 대한 서사를 새롭게 보충하거나 다른 텍스트와 혼합함으로써 서사성을 강화하거나 의도대로 변주할 수 있다.

17) 구분 기호와 밑줄 및 친한 글씨: 인용자.

전술한바 ‘[다]’는 이 작품의 ‘사건’ 부분이다. 그런데 ‘사건 안의 사건’으로서 이후 전개될 반복적인 서사 구조의 시작 지점은 ‘⑩’이다. ‘ⓐ~ⓑ’는 곳간 신이 늙은 쥐를 訊問하여 ‘복승아나무’와 ‘벼드나무’를 ‘꼬드긴 자’의 답으로 얻어낸 내용이다. ‘ⓒ~ⓕ’는 복승아나무·벼드나무를 잡아들여서 그들의 얘기를 듣고 하옥하는 내용이다. ‘ⓖ~ⓗ’는 곳간 신이 다시 늙은 쥐를 불러 ‘꼬드긴 자’를 또 대라고 신문하자 ‘문신’과 ‘호령’의 이름이 나오고 곳간 신이 이들을 잡아다가 취조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①곳간 신이 늙은 쥐에게 방관자·조력자 실토 요구—②늙은 쥐의 답변—③답변에 나온 대상 체포—④곳간 신이 체포돼온 대상을 신문·처결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서옥설』은 이와 같은 액자식 구성이며 각 이야기는 간명하다. 곳간 신이 신문하면 늙은 쥐가 대개 둘씩 둑어서 답변하는데 그 대상이 총 84종이니, 비슷한 캐릭터들의, 비슷한 이야기가, 비슷한 구조로 계속 반복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등장인물들 및 이야기의 재배치와 교환 같은 서사의 재구성이 매우 자유롭고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한바 한국고전 의인화 서사는 TMS와 세계관 창출의 요건을 거의 완비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이러한 특징은 한국고전서사에 일반적으로 공유되는 것이므로 한국고전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한국적 TMS와 세계관 기획·개발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3. K-유니버스의 심화와 K-문화영토의 확장: 현대서사·K-팝과 타민족의 서사들

고전서사로 구축된 K-유니버스 모태는 현대서사·K-팝 서사(아이돌 유니버스)와의 연계와 결합을 통해 그 구심(求心)을 더욱 공고히 다지며 심화할 필요가 있다. 또 전술하고 강조한 한국—문화의 발전 과정과 발산 방식을 염두에 두고 그 정신과 방법(론)에 따라서 타민족의 서사들까지 결합해나감으로써 K-문화영토의 융화적(融合的) 확장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문화가 주도하는 문화영토의 융화가 중요한 까닭은 미국을 위시한 과거의 제국주의 민족·국가들이 호시탐탐 문화제국주의를 행사할 기회를 엿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디즈니나 할리우드의 서사들은 대개 선과 악의 대결 구도를 제시하고 선의 승리로 귀결하는데, 이때 선은 거의 미국이나 같은 진영의 세력으로 내세워지곤 한다. 액션·슈퍼히어로·전쟁·재난·SF·블록버스터·정치·첩보 등을 가리지 않고 이러한 경향은 줄곧 노정된다(캡틴 아메리카 시리즈, 트랜스포머 시리즈, 탑건 등등). 심지어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과 가족영화에서도 이러한 성향은 흔히 보이며, 세계 각지 민족서사들을 자기화하면서 상대화된 그 민족들에 대해서는 고정관념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묘사하며 그 영향력 아래 붙잡아두고자 하기도 한다(포카혼타스, 라이온킹, 알라딘, 물란 등등).

미상불 저들은 과거에 무력으로 타민족국가를 침략하여 식민지로 삼고 무도하게 약탈했던 것처럼, 저들의 식민지였던 3세계 국가들에 대한 원조 사업에서도 시혜자의 자세와 방식을 취할 때가 대부분이어서인지 실패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아 보인다.¹⁸⁾

그에 반해 한국—문화는, 제국주의적이거나 국력을 앞세운 게 아닌, ‘문화적인’ 방식으로 원조하고 ‘K-’를 확산해감으로써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뚜렷한 원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¹⁹⁾ 그 외의 권역 및 국가에서는 소프트파워 이상의 ‘스위트파워’²⁰⁾를 발휘하기도 한다.

한국—문화의 의지나 목적과는 상관없이 문화제국주의적인 문화영토 확장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저들은 결코 가만히 있었던 적이 없다. 단지 저들 방식으로의 결합에 성공한 국가가 많지 않을 뿐이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글로벌 대중과 민족—국가를 향한 한국—문화의 더욱 적극적인 손길과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IV. 글로벌 K-문화영토에 편만한 K-스토리텔링: 문화 ‘팍스코리아나’의 선한 영향력과 이상

K-문화영토가 글로벌 전역에 고르게 편재(遍在)하고 그 중심에서 한국—문화가 작동하게 된다면 인류는 사상(史上) 유례없는, 가장 이상적인 존재 방식과 의미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인류는 물리적 힘—무력의 논리와 방식으로 존재해왔다. 그것의 대체물로 여겨지는 현대사회의 금력(金力)이나 권력도, 허다한 서사물에서 묘사되듯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무력으로 전환된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강국이라고 한다면 그 권능은, 지금까지 살펴보고 논의해왔듯이,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은 정치력·경제력·군사력 같은 하드파워가 아닌 소프트—스위트 파워로 강국 반열에 오른 유일무이한 나라로서 강국 또는 선진국의 의무와 영향력도 소프트—스위트하게 행사하고 있다. 이 글은 서두에서부터 이를 한국—문화의 과정적 특성과 정체성으로 강조해두고 그 실상을 여러 곳에서 확인한 바 있다.

한국—문화의 핵심개념은 협력·상호적·융화 같은 ‘더불어’와 ‘함께’의 방법으로 공동체적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해외 원조나 산업·기술 수출 방

18) 조원호, 「국제개발원조(ODA)의 전략적 오류와 아프리카의 딜레마: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외교』 149, 한국 외교협회, 2024.; 이강국, 「대외원조의 미래를 묻다」, 『한겨레신문』, 2011.12.4.(검색일자: 2025년11월11일).

19) 「한국국제협력단_KOICA 국가별 지원실적」, 한국국제협력단, 2024.;

[국제개발협력—우리나라 지원현황], <https://www.opm.go.kr/opm/info/international-cooperation03.do> (검색일자: 2025년11월12일)

20) Vincenzo Cicchelli-Sylvie Octobre, “Le Sweet Power De La Hallyu(Ou La Géopolitique De La K-POP)”, IRIS, 2022(K-POP, Soft Power et Culture Global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2022).

법(론)이 그러하고, K-팝의 글로벌 자원 및 대중의 수렴—확장 방식이 그러하며, K-컬처 콘텐츠들의 철학과 내용이 또 그러하다. 따라서 K-문화영토는 대동(大同) 세계관이 콘텐츠—가상에서뿐 아니라 현실로 구현되는 이상계(理想界)라고 할 수 있겠다.

이제 ‘팍스코리아나’는 문화제국주의적 야망이 담지된 게 아니며, 상대 민족이나 국가를 힘으로 복속하거나 그 문화를 왜곡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처음에는 순수 한국적인 것들이 ‘K-’를 형성하겠지만 K-컬처가 심화하고 K-문화영토가 확장할수록 상호 차이와 차별적 요소들은 점점 희미해지고 공동체적 연대와 대동적 세계관이 강화될 것이다. 그러한 환경, K-문화영토에서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며 소통하고 공감하게 될 것인즉, 그 모습들을 일컬어 존재 방식의 또는 일상적 의미의 K-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

토론문

태지호(국립경국대학교)

본 논문은 K-컬처/한류 뿐에 대해 K-유니버스의 구축을 통한 K-문화영토로의 확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본 논문은 이에 대한 일종의 전략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전 서사를 활용한 한국적 세계관의 구축이라는 ‘장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야심찬 시도라 여겨집니다. 관련하여 본 토론자도 논문을 읽으면서 한류에 대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다만 고전 서사 분야 및 미디어 연구에 관해 우수한, 다수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신 임형택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 토론을 맡게 되어 부담이 적지 않았다는 소회를 우선 밝힙니다.

토론자의 입장에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개인적 의견은 논의의 지향점에 관한 것입니다. 임형택 교수님께서 제시하는 전반적인 논의는 미국/헐리우드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과 전복에 있습니다. 본 토론자도 이러한 입장에 적극 동의하는 바이지만, 궁금한 점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K-유니버스의 구축과 K-문화영토의 확장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본 토론자는 이것이 또 다른 문화 제국주의의 논리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즉 교수님의 주장이 그간 미국이나 혈리우드 등이 진행해왔던 문화적 지배력의 확장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마블의 기획을 참고하면서, “한국은 사기업 외에도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언급하셨는데, 이에 대해 좀 더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문화는 자율적인 영역이고 그 러해야만 한다는 것이고, 한류의 시작 또한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율적인 문화의 영역에서 왜 제도적 개입이 수반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 제국주의적 기획이라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본 토론자는 K-유니버스와 K-문화영토에 대해 반 겐忸이나 빅터 터너가 언급했던 코뮤니티스나 리미널의 개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하는, 다소 조심스러운, 역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K-컬처를 매개로 서로 관계 맺게 된 오늘날의 수용자/대중/행위자들이 강렬한 정서적인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한 연대와 기준의 에너지/힘을 갱신하거나 환기하는 관점입니다. 기준의 구조화된 세계의 질서(계층, 민족, 인종, 성별 등의 구별, 미국 등의 국가에 의한

문화적 규범의 내재화 등)가 K-컬처를 통해 해체되거나 기각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리미널’의 순간으로 인식하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질서로의 진입 과정으로 바라본다면 ‘팍스코리아나’와 같은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제국주의적 입장들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논문에서 강조되고 있는 K-컬처의 창조성을 구현하기 위한 이론적 단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논문의 구성적 차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구성으로 보면, 한류에서의 서사의 역할이나 기능에 관한 논의와 고전 서사를 활용한 K-컬처의 확장이라는 논의라는, 2개의 글로 읽혀집니다. 물론 K-컬처의 서사라는 점에서 이 둘이 연결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에서 보면 고전 서사에 관한 논의는 ‘고전서사학적’ 분석에 치중되며, 정작 그것의 트랜스미디어스토리텔링으로의 활용 지점이나 콘텐츠화의 가능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누락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개념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논문의 핵심 개념은 ‘서사’일 것인데, 교수님께서는 서사를 어떻게 개념화하거나 정의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서사학이나 문학 영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일반화된 개념 정의가 아니라 교수님께서 재규정하거나 재인식하는 서사란 무엇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논문에서 이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논의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라 생각되며, 특히 누구보다 서사에 관한 괄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보여주신 임형택 교수님께서는 특별한 입장을 표명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서 교수님의 방대한 지적 성취에 대해 감탄하였습니다. 본 토론자는 해당 논문 주제에 문외한입니다. 이에 앞서 드린 일련의 의견이나 질문은 본 토론자가 임형택 교수님의 논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시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혜아려 주시길 바라며,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흥미롭고 매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즐겁게 토론문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